濟州道 中學生의 統一意識

指導敎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社會敎育專攻

提出者　趙　承　均

趙承均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議委員長 朴 龍 坍 印

審議 委員 宋 [illegible] 大 印

審議 委員 金 恒 元 印

<抄錄>

濟州道 中學生의 統一意識

趙 承 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社會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恒 元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일의식의 실태를 분석 진단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생들을 시·읍·면 지역의 지역별 및 인구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총 11개 학교 927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관련된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설문 조사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χ^2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9개분야 20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로는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은 응답자의 39.1%만이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0.1%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의 이유를 민족적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89.5%가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 높은 반응(84.3%)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는 아직도 남북의 이념 대립(38.6%)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유화·개방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못지않게 꾸준한 남북 교류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통일 후의 국가는 88.6% 학생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

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의 장점이나 단점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남·북의 통일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4.7%, 22.7%에 그치고 있다. 일곱째, 통일문제는 국익에 손해가 없는 한 완전히 개방해야 하며, 통일 논의가 기성세대 중심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통일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84.8%)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 중학생도 충분히 또는 조금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반응도 64.8%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분단의 원인을 상당히 많은 응답자(53.1%)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관은 6개분야 11개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84.2%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지식의 대부분을 대중매체(73.2%)를 통해서 얻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첫 인상은 대부분(72.8%)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25.6%만이 동일민족 또는 우리의 영토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74.4% 학생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넷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불쌍한 사람들(88.5%)이라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로는 대체적으로 북한이 변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변화의 이유로는 대외적 요인(36.1%)보다는 대내적 요인(63.9%)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1%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71.5%가 꾸준한 경제·문화 교류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67.2%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국가위기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반응이 30.5%에 그치고 있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은 47.4%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반응이 20.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 례

Ⅰ. 序論 ····· 1
1. 研究의 目的 ····· 1
2. 研究의 制限點 ····· 3

Ⅱ. 理論的 背景 ····· 4
1. 統一意識의 槪念 ····· 4
2. 先行 研究 ····· 6
3. 中學校 道德 敎科書 內容 分析 ····· 9

Ⅲ. 研究 方法 ····· 10
1. 調査 道具 ····· 10
2. 標集 ····· 12
3. 資料 處理 ····· 12

Ⅳ. 統一意識의 調査 分析 ····· 14
1. 統一觀 ····· 14
2. 北韓觀 ····· 53
3. 國家觀 ····· 72

Ⅴ. 結論 : 要約 및 提言 ····· 77
參考文獻 ····· 81
英文抄錄 ····· 83
附 錄 ····· 86

표 차 례

표 1.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의식 관련 내용 ····· 9
표 2. 질문지의 내용 구성 ····· 11
표 3.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13
표 4. 배경 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 13
표 5.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 15
표 6.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 ····· 17
표 7. 통일에 대한 의지 ····· 19
표 8. 통일의 필요성 ····· 21
표 9. 통일의 가능성 ····· 23
표 10. 통일의 방법 ····· 25
표 11. 통일의 주체 ····· 27
표 12. 통일의 장애 요인 ····· 29
표 13. 통일의 선결 과제 ····· 31
표 14. 통일 후의 이상적인 국가 체제 ····· 33
표 15. 통일 후의 장점 ····· 35
표 16. 통일 후의 단점 ····· 37
표 17.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 39
표 18. 북한의 통일 방안 ····· 41
표 19. 통일문제의 개방정도 ····· 43
표 20. 통일문제 논의의 문제점 ····· 45
표 21. 통일의 주체 ····· 47
표 22. 청소년들의 통일에의 기여 정도 ····· 48
표 23. 분단의 원인 ····· 50
표 24. 분단의 고통 ····· 52
표 25. 북한 방문 의사 ····· 54

표 26.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 55
표 27. 북한 관련 지식의 획득원 ····· 57
표 28. 북한에 대한 첫 인상 ····· 59
표 29.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 60
표 30. 북한 주민·청소년에 대한 인식 ····· 63
표 31.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시 태도 ····· 64
표 32. 최근 북한의 변화 정도 ····· 66
표 33. 북한의 변화 이유 ····· 68
표 34.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 ····· 69
표 35.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 방안 ····· 71
표 36. 국가위기시의 태도 ····· 73
표 37.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 ····· 75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지금 세계는 소연방의 몰락과 중국의 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와 민족간에도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 공존의 길을 찾고 있다. 동서 냉전의 대표적 희생국인 동·서독 마저도 통일을 이룩한 화해 협력의 시대다. 하지만 남북한은 분단이 된 지 약 반세기가 흘렀음에도 서로의 대결구조 속에서 서로 단절된 생활을 계속해 왔다. 한민족임에도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여 민족 분열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적대 관계를 심화시켜 남북의 통일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꿈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6.25라는 민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은 남북한 간에는 극복해야 할 분단의 골이 너무 깊어, 남북의 통일 문제는 장기적인 민족의 문제로서 8.15해방이나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기간에는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때 남북의 통일 문제는 기성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인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은 통일 문제를 계승하여 통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통일 승계 세대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하겠다. 아무리 기성세대들이 남북 통일의 중요성을 외치고 강조한들 젊은 세대들이 민족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할 때 민족 화합과 남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은 낙후된 동독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 있고, 이것은 서독 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게 되

었다. 이러한 생각이 청소년들에게 파급되어,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서독처럼 엄청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면서 통일을 이룰 필요성이 있을것인가에 대해 그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남한의 對 북한 교육 방침은 정부 수립 이후 '반공'으로 일관하여 왔다. 6.25 이전에는 '방공'으로, 6.25 이후에는 '멸공'으로, 5.16 이후부터는 '승공'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북한과 공산권에 지나친 경직성을 강조한 통일교육으로 청소년들은 통일 의지를 배양하지 못했으며[1] 북한을 '침략자'로 또는 '우리의 영원한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특히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급성장한 경제발전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도입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한 청소년들은 국가나 민족보다 내가 우선한다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갖고 민족의 통일을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볼 위험을 갖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는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단된 조국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다가오는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 중 제주도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일의식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정영수(1993),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학회, p. 23.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의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을 제주도내 중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시내 5개 학교, 서귀포시내 2개 학교, 남제주군과 북제주군내 각각 2개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설문지 문항의 작성은 선행 연구를 참고 하였으며, 3개 영역 33개 문항만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을 설문지 조사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연구내용을 설문지 내용에만 한정시켜서 질문지법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Ⅱ.理論的 背景

1. 統一意識의 槪念

통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분단의 극복이다. 따라서 통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지리적, 정치적, 민족적 차원의 3단계를 거쳐 고착화되고 심화되었다.[2] 우선 '지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 비롯되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강대국 정치의 산물로서 소련의 야심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 낳은 '국제형 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3]

하지만 일제에 저항하던 독립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그 투쟁의 무대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및 중국 등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 이념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념적·지역적 대결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은 통합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해방 이후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4]

더욱이 1950년 6·25전쟁의 결과 남과 북 사이에는 분단의 **固着化**와 **全面化**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적 분단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에 의해 먼저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진 다음 민족 내분에 의해 정치적 분단, 민족적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

2) 이상우(1993),「함께 사는 통일」, 나남, p. 116.

3) 김학준(1989), 「한국전쟁」, 박영사, p. 10.

4) 이홍구 외(1984),「분단과 통일 민족주의」, 박영사, pp. 107~156.

국제형이면서도 內爭型이라고 하겠다.[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의 의미가 多面的인 것처럼 통일의 의미 또한 다면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통일은 지리적 개념에서 보면, 국토의 통일이다.[6]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한반도 내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권의 단일화를 뜻한다.[7] 통일은 한반도 내에 하나의 정치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 경제권의 통합이다.[8] 경제 체제가 서로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경제권을 새로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의 통합을 뜻한다.[9] 통일된 조국 아래 하나의 국민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國史의 定立이다.[10]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의 국사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회·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화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도 함께 이루는 것을 말한다.[11]

한편, 의식(consciousness)이란, 심리학에서는 '깨어있을 때 사물을 깨닫는 마음의 작용으로 곧 이지와 감정과 의지의 일체 정신작용'이며, 철학에서는 '지식, 감정, 의지 따위의 모든 작용을 자각하는 일'이라 규정 하고 있다.[12]

---

5) 김학준(1989), 전게서, p. 6.
6) 민병천(1992), 「신통일론」, 고려원, pp. 11~15.
7) 상게서, pp. 11~15.
8) 통일연수원(1995), 「통일문제 이해」, p. 17.
9) 민병천(1992), 전게서, pp. 11~15.
10) 상게서, pp. 11~15.
11) 상게서, pp. 11~15.
12) 한국어사전편찬회, 이숭녕 편(1988), 「국어대사전」, p. 1632

또한 사람은 누구나 깨어 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직접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감각, 지각, 감정, 정서, 의지 등)'를 의식이라 부르고 있다. 철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의식이라 함은 '개체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 또는 현상'이라 규정하고 있다[13].

이렇게 볼 때 의식이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감정, 정서, 지각, 지식, 의지, 관심, 신념, 의견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관 즉, 통일에 대한 가치, 태도, 신념, 관심, 지식, 의견, 의지 등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의식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개개인의 환경·교육 수준·사고 방식·문화 수준·생활 방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국민 개개인의 통일의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통일의식은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든 추상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의식은 통일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념이나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2. 先行 硏究

북한, 통일 및 안보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며 이러한 연구는 1969년부터 국토통일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일반인·대학생을 중심으로한 통일·안보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았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 東亞出版社(1995), 「東亞世界大百科事典(제23권)」, p. 37.

1980년대의 연구를 살펴보면, **洪性旭**은 "**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構造**에 관한 **硏究**"에서 고등학생들의 국가관, 시국관, 북한관, 통일관 및 반공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등학생의 반공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4].

張炅模는 "**青少年의 統一意識 調査 硏究 - 釜山地方 中·高等學生을 中心으로 -**"에서 통일의식의 개념 모형을 국가관, 북한관, 통일관, 안보관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통일 문제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안보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15]

1990년대의 연구를 살펴보면, **羅德柱**는 "**高等學校學生의 北韓觀과 統一意識 調査硏究**"에서 북한 체제 일반에 관한 견해, 북한에 대한 관심도, 일반적인 통일 문제, 통일 환경 조성 노력과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들, 우리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인지도, 바람직한 통일 후의 사회체제, 남북한 유엔가입 방안에 관한 의견 등의 설문을 통해 그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성별과 학년별에 중점을 두어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국가에서 주역이 되도록 통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16] 박성희·박정선은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의 24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32개 대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통일, 북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성별, 거주지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생활 수준별, 실향민 여부별 등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한 부분이나 단편으로 또는 한정된 지역의 특정 청소년만을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만을 중점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의 통일의식을 보다 구

---

14) **洪性旭**(1985), "**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構造에 관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敎 敎育大學院**.

15) **張炅模**(1985), " **青少年의 統一意識 調査 硏究-釜山地方 中·高等學生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附屬大學院**.

16) **羅德柱**(1992), "**高等學校學生의 北韓觀과 統一意識 調査硏究**," **碩士學位論文**, **西江大學校 公共政策大學院**.

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분석하였다.[17] 韓大永은 "韓國 靑少年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硏究 - 京畿道地域 高校生들의 設問調査 結果를 中心으로-"에서 분단의 책임과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 남북한의 비교와 전쟁 가능성에 관한 인식, 평화통일 가능성과 통일과정에 관한 인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모색하고 있다.[18] 車敏卿은 "初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硏究"에서 대전직할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 연구에서 통일에 관한 의식을 분단 현실과 통일의 방법 및 이념으로 구분하여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9]

한편, 제주도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金致洪은 "濟州道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에 關한 調査硏究"에서 공산주의, 북한, 통일, 안보 등의 4개영역을 통해 통일·안보의식을 조사하고 있다.[20] 金姬는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硏究"에서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으로 나누어 통일의식을 조사하였다.[21] 李琓成은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査硏究"에서 통일의식을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으로 구분하여 성별, 학교계열별, 생활정도별, 보호자 직업별로 비교·분석하고 있다.[22]

이외에도 국토통일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 각 대학교의 학위 논문, 각 연구소에서 발표된 여론 조사 등이 있었다.

---

17) 박성희·박정선(1992), "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8) 韓大永(1993), " 韓國靑少年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硏究 - 京畿道地域 高校生들의 設問調査 結果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19) 車敏卿(1993), " 初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敎 大學院.

20) 金致洪(1980), "濟州道 中·高等學生들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調査硏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1) 金姬(1993), "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敎 敎育大學院.

22) 李琓成(1994),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査硏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3. 교과서 내용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중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통일의식 관련 내용이 많이 실려 있어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표 1>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의식 관련 내용

교과	학년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도덕	1	ㅇ 민족의 비극 ㅇ 분단의 원인과 과정 ㅇ 북한의 정치·경제 현실 ㅇ 북한의 사회·문화 현실	ㅇ 민족의 발전과 문화 창달 ㅇ 애국심과 민족애 ㅇ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2	ㅇ 조국 통일의 당위성 ㅇ 우리의 통일 정책 ㅇ 북한의 통일 정책 ㅇ 통일을 위한 자세	ㅇ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ㅇ 분단의 현실 ㅇ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
	3	ㅇ 공산주의 이론의 특징 ㅇ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 ㅇ 공산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징 ㅇ 공산권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ㅇ 민족 공동체 번영 ㅇ 통일 국가 실현 ㅇ 세계속의 한국인

(자료 : 교육부(1994),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교육부고시 제1992-11호('92.6.30)」)

Ⅲ. 硏究 方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설문 조사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통일의식의 개념과 일반적 성격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제주도내 중학생의 통일의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식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調査 道具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통일의식의 개념 모형을 영역별, 주제별로 설정한 후 선행 연구물들 중에서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추출하고, 연구자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첨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응답자의 배경에 관한 문항(4문항)과 통일의식에 관한 문항을 통일관에 관한 문항(20문항), 북한관에 관한 문항(11문항), 국가관에 관한 문항(2문항) 등으로 나누어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7개 문항 중 36개 문항은 선다지선택형 문항으로 몇 개의 응답 범위를 제시하여 택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개 문항은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질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응답자가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면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타당성, 난이도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1996.2.5)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2〉 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통일의식 영역	질문주제	질문내용	문항 번호
통일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5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	6
	통일의 당위성	통일에 대한 의지	7
		통일의 필요성	8
		통일의 가능성	9
	통일방법 및 통일 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의 방법	10
		통일의 주체	11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의 장애 요인	12
		통일의 선결과제	13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 후의 이상적인 국가 체제	14
		통일 후의 장점	15
		통일 후의 단점	16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	17
		북한의 통일방안	18
	통일문제의 논의 방식	통일문제의 개방정도	19
		통일논의의 문제점	20
	통일승계 세대로서의 인식	통일의 주체	21
		청소년들의 통일에의 기여정도	22
	남북분단에 대한 인식	분단의 원인	23
		분단의 고통	24
북한관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방문 의사	25
	북한에 대한 인지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26
		북한 관련 지식의 획득원	27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첫 인상	37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28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29
		북한과 다른나라와의 경기	30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최근 북한의 변화 정도	31
		최근 북한의 변화 이유	32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33
	남북 동질성 회복방안	남북의 이질성 극복 방안	34
국가관	국가위기시의 태도	국가 위기시의 태도	35
	민주주의 우월성 인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36

2. 標 集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생의 모집단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읍·면 지역의 지역별 학생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시내 5개 학교 10학급, 서귀포시내 2개 학교 4학급, 남제주군 관내 2개 학교 3학급, 북제주군 관내 2개 학교 3학급, 총 11개학교 20학급(927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집 대상 학교와 학급을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1996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 학교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의 사회과 담당 교사로 하여금 설문 조사를 하게 한 후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927매를 배부하여 911매를 회수함으로써 98.2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통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하거나 여러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거나 성의없는 응답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료 12매는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 대상 인원은 899명이다.

설문지 배부·회수 현황과 배경 변인별 응답 결과를 보면 각각 〈표 3〉, 〈표 4〉와 같다.

3. 資料 處理

수집된 자료는 SPSS-X에 의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 방법은 전체 및 배경 변인별로 각 집단에 백분율(%)을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살펴보았다. 배경 변인별 분석은 성별, 거주지별, 생활 수준별, 보호자의 직업별로 구분하였으며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χ^2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표 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 역 (학교수)	구 분	배부수	회수된수	제외수	유효한수 (통계수)	회수율(%)
제 주 시 (5)	남	240	237	2	235	98.75
	여	242	238	5	233	98.35
	소 계	482	475	7	468	98.55
서귀포시 (2)	남	90	89	1	88	98.89
	여	94	93	1	92	98.94
	소 계	184	182	2	180	98.91
남제주군 (2)	남	40	39	.	39	97.50
	여	96	93	.	93	96.88
	소 계	136	132	.	132	97.06
북제주군 (2)	남	80	78	3	75	97.50
	여	45	44	.	44	97.78
	소 계	125	122	3	119	97.60
합 계		927	911	12	899	98.27

〈표 4〉 배경 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배 경 변 인	변 인 구 분	변 인 크 기	변인구성비(%)	계
성 별	남	462	51.4	899
	여	437	48.6	
거주지별	제 주 시	452	50.3	899
	서귀포시	178	19.8	
	읍 · 면	269	29.9	
생활수준별	상 상	6	0.7	899
	상	109	12.1	
	보 통	731	81.3	
	하	45	5.0	
	하 하	8	0.9	
보 호 자 직 업 별	농업·어업	212	23.6	899
	상업 및 서비스업	249	27.7	
	노 동	77	8.6	
	회 사 원	96	10.7	
	공무원 및 교사	113	12.6	
	기 타	152	16.9	
합 계		899	100	899

Ⅳ. 結果 分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관련 영역은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살펴보고 둘째, 표집대상의 각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살펴 그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배경 변인을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분석하며 셋째,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 결과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항을 분석함에 있어 문항 내용이 선행 연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선행 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1. 統一觀

통일의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일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 방법 및 통일 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 문제의 논의 방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 남북분단에 대한 인식 등으로 크게 나누어 총 20문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1)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 친구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통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십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각각 <표 5>, <표 6>과 같다.

<표 5>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소계	df	χ^2
성별	남	461 (51.4)	26 (5.6)	138 (29.9)	154 (33.4)	125 (27.1)	18 (3.9)	461 (100)	4	12.91*
	여	436 (48.6)	51 (11.7)	136 (31.2)	141 (32.3)	94 (21.6)	14 (3.2)	436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35 (7.8)	123 (27.3)	156 (34.6)	117 (25.9)	20 (4.4)	451 (100)	8	16.13*
	서귀포시	178 (19.8)	11 (6.2)	55 (30.9)	66 (37.1)	43 (24.2)	3 (1.7)	178 (100)		
	읍·면	268 (29.9)	31 (11.6)	96 (35.8)	73 (27.2)	59 (22.0)	9 (3.4)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	16	16.80
	상	108 (12.0)	15 (13.9)	30 (27.8)	37 (34.3)	21 (19.4)	5 (4.6)	108 (100)		
	보통	730 (81.4)	56 (7.7)	228 (31.2)	240 (32.9)	184 (25.2)	22 (3.0)	730 (100)		
	하	45 (5.0)	5 (11.1)	13 (28.9)	13 (28.9)	11 (24.4)	3 (6.7)	45 (100)		
	하하	8 (0.9)	1 (12.5)	1 (12.5)	4 (50.0)	1 (12.5)	1 (1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2 (23.6)	17 (8.0)	74 (34.9)	61 (28.8)	49 (23.1)	11 (5.2)	212 (100)	20	28.11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22 (8.8)	76 (30.5)	75 (30.1)	67 (26.9)	9 (3.6)	249 (100)		
	노동	76 (8.5)	7 (9.2)	16 (21.1)	32 (42.1)	19 (25.0)	2 (2.6)	76 (100)		
	회사원	95 (10.6)	12 (12.6)	27 (28.4)	39 (41.1)	17 (17.9)	-	95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8 (7.1)	38 (33.6)	43 (38.1)	23 (20.4)	1 (0.9)	113 (100)		
	기타	152 (16.9)	11 (7.2)	43 (28.3)	45 (29.6)	44 (28.9)	9 (5.9)	152 (100)		
전체		897 (100)	77 (8.6)	274 (30.5)	295 (32.9)	219 (24.4)	32 (3.6)	897 (100)		

(* $p<0.05$)

첫째,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표 5>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① 매우 관심 있다(8.6%) ② 약간 관심 있다(30.5%) ③ 보통이다(32.9%) ④ 별로 관심이 없다(24.4%) ⑤ 전혀 관심이 없다(3.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9.1%만이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통일 문제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 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문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박성희·박정선의 선행 연구[23]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1.1%만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여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한국 청년 정책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24] 에 의하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세대별 평균이 34.4%, 40대 이상은 51.6%로 나타나고 있어 前戰세대보다 중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톨릭 중등교육자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25]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23.5%만이 통일에 대해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는 성별과 거주지별에 따라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학생(42.9%)이 남학생(35.5%)보다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는 읍·면 지역 학생(47.4%)이 제주시 지역 학생(35.1%)이나 서귀포시 지역 학생(37.1%)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 수준별는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는 학생(30.3%)이 다른 직업에 비해

---

23)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서, pp. 21~22.

24) 中央日報, "우리국민 90.3% 통일 관심도 높아 - 한국 청년 정책 연구소 조사-,"1993年 8月 7日.

25) 韓國日報, "<통일> 중·고생 70% '통일 반드시 이룰 필요 없다'," 1995年 5月 4日.

<표 6>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

변 인		변 인 구성비	항 목 별 구 성 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 별	남	462 (51.4)	5 (1.1)	124 (26.8)	29 (6.3)	207 (44.8)	97 (21	462 (100)	4	15.05**
	여	437 (48.6)	10 (2.3)	76 (17.4)	38 (8.7)	200 (45.8)	113 (25.9)	437 (100)		
거 주 지 별	제 주 시	452 (48.6)	7 (1.5)	97 (21.5)	26 (5.8)	200 (44.2)	122 (27.0)	452 (100)	8	14.30
	서귀포시	178 (19.8)	3 (1.7)	34 (19.1)	13 (7.3)	88 (49.4)	40 (22.5)	178 (100)		
	읍 · 면	269 (29.9)	5 (1.9)	69 (25.7)	28 (10.4)	119 (44.2)	48 (17.8)	269 (100)		
생 활 수준별	상 상	6 (0.7)	-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	16	15.32
	상	109 (12.1)	2 (1.8)	22 (20.2)	7 (6.4)	47 (43.1)	31 (28.4)	109 (100)		
	보 통	731 (81.3)	10 (1.4)	164 (22.4)	57 (7.8)	333 (45.6)	167 (22.8)	731 (100)		
	하	45 (5.0)	3 (6.7)	10 (22.2)	2 (4.4)	19 (42.2)	11 (24.4)	45 (100)		
	하 하	8 (0.9)	-	2 (25.0)	-	6 (75.0)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2 (23.6)	6 (2.8)	50 (23.6)	16 (7.5)	100 (47.2)	40 (18.9)	212 (100)	20	22.04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7)	3 (1.2)	63 (25.3)	22 (8.8)	114 (45.8)	47 (18.9)	249 (100)		
	노 동	77 (8.6)	-	16 (20.8)	4 (5.2)	32 (41.6)	25 (32.5)	77 (100)		
	회 사 원	96 (10.7)	1 (1.0)	20 (20.8)	6 (6.3)	45 (46.9)	24 (25.0)	96 (100)		
	공 무 원 교 사	113 (12.6)	-	24 (21.2)	8 (7.1)	51 (45.1)	30 (26.5)	113 (100)		
	기 타	152 (16.9)	5 (3.3)	27 (17.8)	11 (7.2)	65 (42.8)	44 (28.9)	152 (100)		
전 체		899 (100)	15 (1.7)	200 (22.2)	67 (7.5)	407 (45.3)	210 (23.4)	899 (100)		

(** $p<0.01$)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표 6>에서과 같이 ① 자주한다(1.7%) ② 가끔한다(22.2%) ③ 보통이다(7.5%) ④ 별로 하지 않는다(45.3%) ⑤ 전혀 하지 않는다(23.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23.9%만이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자주' 또는 '가끔'나누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간 태도를 취하거나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일 문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대화의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김희의 선행 연구[26]에 의하면 응답자의 66.9%가 통일에 대한 대화를 '자주' 또는 '간혹'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완성의 선행 연구[27]에 의하면 통일 문제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학생이 3.9%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문제에 관한 대화의 정도가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27.9%)이 여학생(19.7%)보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읍·면 지역(27.6%)이 학생이 제주시 지역 학생(23.0%)이나 서귀포시 지역 학생(20.8%)보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 수준별·보호자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우리나라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각각 <표 7>, <표 8>, <표 9>와 같다.

---

26) 김희(1993), 전게논문, pp. 12~14.

27)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13~14.

<표 7> 통일에 대한 의지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61 (51.3)	40 (8.7)	204 (44.3)	105 (22.8)	62 (13.4	50 (10.8)	461 (100)	4	23.88***
	여	437 (48.7)	51 (11.7	240 (54.9)	79 (18.1)	49 (11.2	18 (4.1)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2 (50.3)	39 (8.6)	200 (44.2)	106 (23.5)	64 (14.2)	43 (9.5)	452 (100)	8	19.35*
	서귀포시	178 (19.8)	17 (9.6)	100 (56.2)	31 (17.4)	20 (11.2)	10 (5.6)	178 (100)		
	읍·면	268 (29.8)	35 (13.1)	144 (53.7)	47 (17.5)	27 (10.1)	15 (5.6)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1 (16.7)	2 (33.3)	1 (16.7)	-	2 (33.3)	6 (100)	16	9.97
	상	109 (12.1)	13 (11.9)	53 (48.6)	22 (20.2)	13 (11.9)	8 (7.3)	109 (100)		
	보통	730 (81.3)	72 (9.9)	362 (49.6)	150 (20.5)	91 (12.5)	55 (7.5)	730 (100)		
	하	45 (5.0)	4 (8.9)	22 (48.9)	10 (22.2)	7 (15.6)	2 (4.4)	45 (100)		
	하하	8 (0.9)	1 (12.5)	5 (62.5)	1 (12.5)	-	1 (1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2 (23.6)	24 (11.3)	116 (54.7)	32 (15.1)	24 (11.3)	16 (7.5)	212 (100)	20	29.41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6)	22 (8.9)	112 (45.2)	66 (26.6)	30 (12.1)	18 (7.3)	248 (100)		
	노동	77 (8.6)	6 (7.8)	35 (45.5)	15 (19.5)	16 (20.8)	5 (6.5)	77 (100)		
	회사원	96 (10.7)	8 (8.3)	56 (58.3)	19 (19.8)	6 (6.3)	7 (7.3)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15 (13.3)	61 (54.0)	19 (16.8)	13 (11.5)	5 (4.4)	113 (100)		
	기타	152 (16.9)	16 (10.5)	64 (42.1)	33 (21.7)	22 (14.5)	17 (11.2)	152 (100)		
전체		898 (100)	91 (10.1)	444 (49.4)	184 (20.5)	111 (12.4)	68 (7.6)	898 (100)		

(* $p<0.05$, *** $p<0.001$)

첫째, 통일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표 7>에서와 같이 ①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0.1%) ② 가능하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49.4%) ③ 북한이 좀더 잘 살게 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20.5%) ④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12.4%) ⑤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7.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10.1%만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통일 의지가 소극적이며, 무관심을 보이는 학생도 12.4%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도 7.6%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의 통일 주역이 될 중학생들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임을 일깨우는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응답은 여학생(11.7%)이 남학생(8.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반응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제주시 지역 학생(8.6%)이나 서귀포시 지역 학생(9.6%)보다 읍·면 지역 학생(13.1%)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학부모가 노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7.8%만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해 통일 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통일에 대한 대화의 정도에서처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농촌 지역 학생이 도시 지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학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한 통일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는 <표 8>에서와 같이 ①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20.2%) ②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11.5%) ③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22.5%) ④ 전쟁의 공포로부터

<표 8> 통일의 필요성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소계	df	χ^2
성별	남	449 (51.0)	69 (15.4)	53 (11.8)	115 (25.6)	76 (16.9)	136 (30.3)	449 (100)	4	19.58***
	여	432 (49.0)	109 (25.2)	48 (11.1)	83 (19.2)	50 (11.6)	142 (32.9)	432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1 (50.1)	95 (21.5)	51 (11.6)	103 (23.4)	61 (13.8)	131 (29.7)	441 (100)	8	5.70
	서귀포시	177 (20.1)	36 (20.3)	20 (11.3)	31 (17.5)	30 (16.9)	60 (33.9)	177 (100)		
	읍·면	263 (29.9)	47 (17.9)	30 (11.4)	64 (24.3)	35 (13.3)	87 (33.1)	263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1 (16.7)	2 (33.3)	-	1 (16.7)	2 (33.3)	6 (100	16	10.37
	상	108 (12.3)	21 (19.4)	11 (10.2)	27 (25.0)	17 (15.7)	32 (29.6)	108 (100)		
	보통	715 (81.2)	146 (20.4)	83 (11.6)	160 (22.4)	103 (14.4)	223 (31.2)	715 (100)		
	하	44 (5.0)	8 (18.2)	5 (11.4)	10 (22.7)	5 (11.4)	16 (36.4)	44 (100)		
	하하	8 (0.9)	2 (25.0)	-	1 (12.5)	-	5 (6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8 (23.6)	40 (19.2)	22 (10.6)	50 (24.0)	29 (13.9)	67 (32.2)	208 (100)	20	21.73
	사업 및 서비스업	244 (27.7)	46 (18.9)	36 (14.8)	46 (18.9)	46 (18.9)	70 (28.7)	244 (100)		
	노동	75 (8.5)	17 (22.7)	8 (10.7)	18 (24.0)	11 (14.7)	21 (28.0)	75 (100)		
	회사원	95 (10.8)	21 (22.1)	8 (8.4)	23 (24.2)	10 (10.5)	33 (34.7)	95 (100)		
	공무원 교사	111 (12.6)	25 (22.5)	11 (9.9)	18 (16.2)	12 (10.8)	45 (40.5)	111 (100)		
	기타	148 (16.8)	29 (19.6)	16 (10.8)	43 (29.1)	18 (12.2)	42 (28.4)	148 (100)		
전체		881 (100)	178 (20.2)	101 (11.5)	198 (22.5)	126 14.3	278 (31.6)	881 (100)		

(*** $p<0.001$)

해방되기 위해서(14.3%) ⑤ 우리 민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서(31.6%)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20.2%만이 통일의 이유로 '한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민족통일이 역사적 사명이요, 민족적 당위성이라는 인식이 중학생들에게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3.1% 학생이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선행 연구를 보면, 박성희 박정선의 연구[28]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3.5%가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 응답했으며, 나머지 65.1%의 응답자가 현실적인 면에서 통일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이완성의 연구[29] 결과 역시 통일의 이유를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22.3%),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39.9%)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통일의 이유를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여학생(25.2%)이 남학생(1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읍·면 지역 학생(17.9%)이 전체(20.2%)보다 낮게 '한민족이기 때문'이라 응답하고 있다.

생활 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공무원 및 교사 자녀 학생의 40.5%가 통일의 이유를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통일의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표 9>에서와 같이 ① 5년 내(18.8%) ② 10년 내(36.3%) ③ 20년 내(17.1%) ④ 20년 이후(17.3%) ⑤ 가능성이 거의 없다(8.6%) ⑥ 절대 불가능하다(1.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9.5%가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55.1%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한 것

---

28)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논문, pp. 27~29.

29)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24~25.

<표 9> 통일의 시기

변 인		변 인 구성비	항 목 별 구 성 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소계		
성 별	남	460 (51.3)	78 (17.0)	158 (34.3)	74 (16.1)	100 (21.7)	39 (8.5)	11 (2.4)	460 (100)	5	15.44**
	여	437 (48.7)	91 (20.8)	168 (38.4)	79 (18.1)	55 (12.6)	38 (8.7)	6 (1.4)	437 (100)		
거 주 지 별	제 주 시	451 (50.3)	79 (17.5)	164 (36.4)	79 (17.5)	75 (16.6)	41 (9.1)	13 (2.9)	451 (100)	10	10.02
	서귀포시	177 (19.7)	36 (20.3)	67 (37.9)	28 (15.8)	30 (16.9)	12 (6.8)	4 (2.3)	177 (100)		
	읍 · 면	269 (30.0)	54 (20.1)	95 (35.3)	46 (17.1)	50 (18.6)	24 (8.9)	-	269 (100)		
생 활 수준별	상 상	6 (0.7)	1 (16.7)	-	2 (33.3)	1 (16.7)	-	2 (33.3)	6 (100)	20	50.49***
	상	108 (12.0)	25 (23.1)	42 (38.9)	10 (9.3)	17 (15.7)	13 (12.0)	1 (0.9)	108 (100)		
	보 통	730 (81.4)	131 (17.9)	269 (36.8)	129 (17.7)	129 (17.7)	58 (7.9)	14 (1.9)	730 (100)		
	하	45 (5.0)	11 (24.4)	12 (26.7)	9 (20.0)	7 (15.6)	6 (13.3)	-	45 (100)		
	하 하	8 (0.9)	1 (12.5)	3 (37.5)	3 (37.5)	1 (12.5)	-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45 (21.3)	80 (37.9)	23 (10.9)	40 (19.0)	18 (8.5)	5 (2.4)	211 (100)	25	22.96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48 (19.3)	97 (39.0)	46 (18.5)	36 (14.5)	18 (7.2)	4 (1.6)	249 (100)		
	노 동	77 (8.6)	14 (18.2)	28 (36.4)	19 (24.7)	9 (11.7)	6 (7.8)	1 (1.3)	77 (100)		
	회 사 원	96 (10.7)	15 (15.6)	36 (37.5)	19 (19.8)	16 (16.7)	8 (8.3)	2 (2.1)	96 (100)		
	공 무 원 교 사	112 (12.5)	23 (20.5)	37 (33.0)	17 (15.2)	24 (21.4)	11 (9.8)	-	112 (100)		
	기 타	152 (16.9)	24 (15.8)	48 (31.6)	29 (19.1)	30 (19.7)	16 (10.5)	5 (3.3)	152 (100)		
전 체		897 (100)	169 (18.8)	326 (36.3)	153 (17.1)	155 (17.3)	77 (8.6)	17 (1.9)	897 (100)		

(** $p<0.01$, *** $p<0.001$)

으로 보고 있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낮으나 통일의 가능성이나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내(5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응답(18.8%)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정도는 지나야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36.3%)이 가장 많아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도 10.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하게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의 연구[30]에 의하면 응답자의 83.5%가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박성희·박정선의 연구[31] 에서도 응답자의 72.1%가 언젠가 통일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강대 교지 '서강'이 실시한 여론조사[32]에서는 무려 95.7%의 학생이 통일이 2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6개 대도시 일반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 조사[33]에서도 응답자의 79.4%가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초등학생에서부터 일반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여학생(59.2%)이 남학생(51.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보호자의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통일의 방법 및 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의 방법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

---

30) 김희(1993), 전게논문, pp. 22~23.

31)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논문, pp. 29~31.

32) **韓國日報**,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5年 8月 8日.

33) **韓國日報**, "통일은 최소한 10년 지나야 가능," 1995年 8月 17日.

<표 10> 통일의 방법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9 (51.2)	391 (85.2)	5 (1.1)	24 (5.2)	39 (8.5)	459 (100)	3	4.83
	여	437 (48.8)	364 (83.3)	14 (3.2)	23 (5.3)	36 (8.2)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9 (50.1)	371 (82.6)	10 (2.2)	19 (4.2)	49 (10.9)	449 (100)	6	11.94
	서귀포시	178 (19.9)	150 (84.3)	3 (1.7)	15 (8.4)	10 (5.6)	178 (100)		
	읍·면	269 (30.0)	234 (87.0)	6 (2.2)	13 (4.8)	16 (5.9)	269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4 (66.7)	1 (16.7)	1 (16.7)	-	6 (100)	12	13.92
	상	108 (12.1)	89 (82.4)	2 (1.9)	6 (5.6)	11 (10.2)	108 (100)		
	보통	729 (81.4)	613 (84.1)	16 (2.2)	40 (5.5)	60 (8.2)	729 (100)		
	하	45 (5.0)	41 (91.1)	-	-	4 (8.9)	45 (100)		
	하하	8 (0.9)	8 (100.0)	-	-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176 (83.4)	3 (1.4)	11 (5.2)	21 (10.0)	211 (100)	15	11.62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6)	207 (83.8)	6 (2.4)	14 (5.7)	20 (8.1)	247 (100)		
	노동	77 (8.6)	64 (83.1)	4 (5.2)	5 (6.5)	4 (5.2)	77 (100)		
	회사원	96 (10.7)	84 (87.5)	-	3 (3.1)	9 (9.4)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100 (88.5)	2 (1.8)	5 (4.4)	6 (5.3)	113 (100)		
	기타	152 (17.0)	124 (81.6)	4 (2.6)	9 (5.9)	15 (9.9)	152 (100)		
전체		896 (100)	755 (84.3)	19 (2.1)	47 (5.2)	75 (8.4)	896 (100)		

응 결과는 각각 <표 10>, <표 11>과 같다.

첫째, 통일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표 10>에서와 같이 ①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84.3%) ② 전쟁을 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2.1%) ③ 어떤 방법도 좋다(5.2%) ④ 잘 모르겠다(8.4%)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 84.3%가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중학생들은 비록 戰後세대이지만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이나, 독일식의 흡수통일은 통일 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를 보면, 박성희·박정선의 연구[34]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91.8%가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족통일연구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35]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82.8%가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인 합의적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거주지별·보호자의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통일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표 11>에서와 같이 ①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10.1%) ② 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0.7%) ③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루어야 한다(78.8%) ④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4.8%) ⑤ 주변의 세계 강대국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1.2%) ⑥ 누가 하든 상관 없다(4.3%)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전체의 78.8% 학생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일은 외세나 남·북한이 단독으로 이루기보다는 남북한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통일의 주체가 남한(10.1%)보다는 북한(0.7%)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의 선행 연구[36] 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모두가

---

34) 박정선.박성희(1992), 전게논문, p. 35.

35) 民族統一研究院(1993),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pp. 77 ~ 79.

36) 김희(1993), 전게논문, p. 35.

<표 11> 통일의 주체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소계		
성별	남	460 (51.3)	36 (7.8)	2 (0.4)	369 (80.2)	26 (5.7)	6 (1.3)	21 (4.6)	460 (100)	5	7.61
	여	437 (48.7)	55 (12.6)	4 (0.9)	338 (77.3)	17 (3.9)	5 (1.1)	18 (4.1)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0 (50.2)	59 (13.1)	3 (0.7)	336 (74.7)	24 (5.3)	5 (1.1)	23 (5.1)	450 (100)	10	15.34
	서귀포시	178 (19.8)	15 (8.4)	1 (0.6)	151 (84.8)	6 (3.4)	2 (1.1)	3 (1.7)	178 (100)		
	읍·면	269 (30.0)	17 (6.3)	2 (0.7)	220 (81.8)	13 (4.8)	4 (1.5)	13 (4.8)	269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1 (16.7)	1 (16.7)	4 (66.7)	-	-	-	6 (100)	20	45.72***
	상	108 (12.0)	12 (11.1)	-	82 (75.9)	4 (3.7)	4 (3.7)	6 (5.6)	108 (100)		
	보통	730 (81.4)	75 (10.3)	4 (0.5)	579 (79.3)	36 (4.9)	5 (0.7)	31 (4.2)	730 (100)		
	하	45 (5.0)	3 (6.7)	1 (2.2)	35 (77.8)	3 (6.7)	1 (2.2)	2 (4.4)	45 (100)		
	하하	8 (0.9)	-	-	7 (87.5)	-	1 (12.5)	-	8 (100)		
보호자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19 (9.0)	2 (0.9)	167 (79.1)	13 (6.2)	1 (0.5)	9 (4.3)	211 (100)	25	53.18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6)	32 (12.9)	-	194 (78.2)	10 (4.0)	2 (0.8)	10 (4.0)	248 (100)		
	노동	77 (8.6)	4 (5.2)	2 (2.6)	64 (83.1)	1 (1.3)	3 (3.9)	3 (3.9)	77 (100)		
	회사원	96 (10.7)	5 (5.2)	-	78 (81.3)	10 (10.4)	-	3 (3.1)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21 (18.6)	-	81 (71.7)	6 (5.3)	3 (2.7)	2 (1.8)	113 (100)		
	기타	152 (16.9)	10 (6.6)	2 (1.3)	123 (80.9)	3 (2.0)	2 (1.3)	12 (7.9)	152 (100)		
전체		897 (100)	91 (10.1)	6 (0.7)	707 (78.8)	43 (4.8)	11 (1.2)	39 (4.3)	897 (100)		

(*** $p<0.001$)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완성의 선행 연구[37]에서는 62.7%의 응답자만이 남북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으로는 성별·보호자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학생(13.1%)이나 서귀포시 학생(8.4%)이 읍·면 지역 학생(6.3%)보다 통일의 주체로 남한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반면에 남북이 공동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은 제주시 학생(74.7%)이 서귀포시 학생(84.8%)이나 읍·면 지역 학생(81.8%)보다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 수준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통일의 선결 과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애 요인과 선결 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각각 <표 12>, <표 13>과 같다.

첫째, 통일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12>와 같이 ① 남북한 이념·사상의 대립(38.6%) ②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대립(11.8%) ③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5.6%) ④ 남북한의 통일 열의 부족(4.7%) ⑤ 남북의 경제적 격차(10.3%) ⑥ 남북간의 여러 가지 다른점(16.4%) ⑦ 통일 방법의 차이(11.0%) ⑧ 미국군이 있어서(1.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8.6% 학생이 통일의 장애 요인을 남한 민주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의 대립이라 보고 있으며, 통일의 장애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주변강대국의 이해 관계, 미국군의 주둔)보다는 민족 내부적인 요인(남북의 이념,사상의 대립, 정치 지도자들의 대립, 남북의 이질화)에서 찾고 있다.

비슷한 질문을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완성의 연구[38]에서는 통일의

37)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31~32.

38) 상게논문, pp. 34~35.

<표 12> 통일의 장애 요인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계	df	χ^2
성별	남	460 (51.3)	185 (40.2)	49 (10.7)	23 (5.0)	18 (3.9)	52 (11.3)	83 (18.0)	47 (10.2)	3 (0.7)	460 (100)	7	11.66
	여	436 (48.7)	161 (36.9)	57 (13.1	27 (6.2)	24 (5.5)	40 (9.2)	64 (14.7)	52 (11.9)	11 (2.5)	436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0 (50.2)	172 (38.2)	52 (11.6)	27 (6.0)	24 (5.3)	55 (12.2)	72 (16.0)	43 (9.6)	5 (1.1)	450 (100)	14	19.08
	서귀포시	178 (19.9)	71 (39.9)	28 (15.7)	3 (1.7)	7 (3.9)	15 (8.4)	27 (15.2)	22 (12.4)	5 (2.8)	178 (100)		
	읍·면	268 (29.9)	103 (38.4)	26 (9.7)	20 (7.5)	11 (4.1)	22 (8.2)	48 (17.9)	34 (12.7)	4 (1.5)	268 (100)		
경제적 지위	상상	6 (0.7)	3 (50.0)	-	-	-	-	-	2 (33.3)	1 (16.7)	6 (100)	28	46.27*
	상	109 (12.2)	35 (32.1)	17 (15.6)	4 (3.7)	3 (2.8)	11 (10.1)	22 (20.2)	16 (14.7)	1 (0.9)	109 (100)		
	보통	728 (81.3)	294 (40.4)	80 (11.0)	42 (5.8)	35 (4.8)	79 (10.9)	112 (15.4)	75 (10.3)	11 (1.5)	728 (100)		
	하	45 (5.0)	12 (26.7)	8 (17.8)	4 (8.9)	4 (8.9)	2 (4.4)	9 (20.0)	6 (13.3)	-	45 (100)		
	하하	8 (0.9)	2 (25.0)	1 (12.5)	-	-	-	4 (50.0)	-	1 (12.5)	8 (100)		
보호자의 직업	농·어업	210 (23.4)	73 (34.8)	23 (11.0)	8 (3.8)	10 (4.8)	22 (10.5)	43 (20.5)	25 (11.9)	6 (2.9)	210 (100)	35	51.02*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104 (41.8)	26 (10.4)	12 (4.8)	12 (4.8)	26 (10.4)	36 (14.5)	27 (10.8)	6 (2.4)	249 (100)		
	노동	77 (8.6)	24 (31.2)	12 (15.6)	8 (10.4)	3 (3.9)	8 (10.4)	13 (16.9)	8 (10.4)	1 (1.3)	77 (100)		
	회사원	96 (10.7)	43 (44.8)	8 (8.3)	5 (5.2)	9 (9.4)	14 (14.6)	5 (5.2)	11 (11.5)	1 (1.0)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50 (44.2)	19 (16.8)	6 (5.3)	2 (1.8)	11 (9.7)	13 (11.5)	12 (10.6)	-	113 (100)		
	기타	151 (16.9)	52 (34.4)	18 (11.9)	11 (7.3)	6 (4.0)	11 (7.3)	37 (24.5)	16 (10.6)	-	151 (100)		
전체		896 (100)	346 (38.6)	106 (11.8)	50 (5.6)	42 (4.7)	92 (10.3)	147 (16.4)	99 (11.0)	14 (1.6)	896 (100)		

(* $p<0.05$)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38.0%가 남북의 이념 대립이라 답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소의 여론 조사[39]에서도 응답자의 44%가 '이념·사상 대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고등학생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념·사상의 대립을 가장 큰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생활 수준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생활 수준이 낮은 학생(26.7%)이 전체응답(38.6%)에 비해서 낮게 장애 요인으로 '이념·사상 대립'이라 응답한 반면, 남북의 경제적 격차 때문이라는 반응 역시 전체(10.3%)에 비해 낮게(4.4%)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는 학생이 '이념·사상의 대립(44.8%)'에 많은 응답을 하였고, '남북한의 여러 가지 다른점(5.2%)'에는 낮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가장 서둘러야 할 문제로는 <표 13>과 같이 ① 남북의 경제 교류(20.2%) ② 남북의 국교 수립(7.5%) ③ 이산 가족의 계속적인 상호 방문(17.9%) ④ 강대국의 협조 요청(1.15) ⑤ 북한의 자유화·개방화(41.9%) ⑥ 미국군의 철수(2.2%) ⑦ 남북한의 편지 교환과 전화 통신 연락(9.3%)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들은 '북한의 개방화·자유화(41.9%)'를 가장 중요한 통일의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이산 가족의 계속적인 방문, 남북의 경제 교류·국교 수립(45.6%) 등 남북한의 상호 교류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남북이 꾸준한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방화·자유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통일의 선결 과제라 보고 있다. 또한 강대국의 협조 요청(1.1%)이나 미국군의 철수(2.2%)등은 미미한 반응을 보여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반응과 일관되게 통일의 선결 과제 역시 민족의 외부보다는 민족의 내부에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중학생들도 통일은 외세보다는 남·북한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9) 中央日報, "우리국민 90.3% 통일관심도 높아 - 청년 정책 연구소 조사," 1993年 8月 7日.

<표 13> 통일의 선결 과제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계		
성별	남	459 (51.2)	81 (17.6	22 (4.8)	84 (18.3)	5 (1.1)	210 (45.8)	7 (1.5)	50 (10.9)	459 (51.2)	6	20.44**
	여	437 (48.8)	100 (22.9)	45 (10.3)	76 (17.4)	5 (1.1)	165 (37.8)	13 (3.0)	33 (7.6)	437 (48.8)		
거주지별	제주시	450 (50.2)	100 (22.2)	33 (7.3)	76 (16.9)	6 (1.3)	184 (40.9)	16 (3.6)	35 (7.8)	450 (50.2)	12	17.68
	서귀포시	178 (19.9)	38 (21.3)	9 (5.1)	30 (16.9)	1 (0.6)	80 (44.9)	1 (0.6)	19 (10.7)	178 (19.9)		
	읍·면	268 (29.9)	43 (16.0)	25 (9.3)	54 (20.1)	3 (1.1)	111 (41.4)	3 (1.1)	29 (10.8)	268 (29.9)		
생활수준별	상 상	6 (0.7)	2 (33.3)	1 (16.7)	1 (16.7)	-	-	1 (16.7)	1 (16.7)	6 (0.7)	24	24.78
	상	109 (12.2)	19 (17.4)	8 (7.3)	19 (17.4)	2 (1.8)	44 (40.4)	3 (2.8)	14 (12.8)	109 (12.2)		
	보 통	728 (81.3)	154 (21.2)	56 (7.7)	126 (17.3)	7 (1.0)	309 (42.4)	14 (1.9)	62 (8.5)	728 (81.3)		
	하	45 (5.0)	5 (11.1)	2 (4.4)	10 (22.2)	1 (2.2)	20 (44.4)	2 (4.4)	5 (11.1)	45 (5.0)		
	하 하	8 (0.9)	1 (12.5)	-	4 (50.0)	-	2 (25.0)	-	1 (12.5)	8 (0.9)		
보호자직업별	농·어업	211 (23.5)	41 (19.4)	8 (3.8)	38 (18.0)	1 (0.5)	94 (44.5)	2 (0.9)	27 (12.8)	211 (23.5)	30	39.51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7)	45 (18.1)	19 (7.7)	45 (18.1)	3 (1.2)	103 (41.5)	8 (3.2)	25 (10.1)	248 (27.7)		
	노 동	77 (8.6)	17 (22.1)	8 (10.4)	17 (22.1)	1 (1.3)	28 (36.4)	1 (1.3)	5 (6.5)	77 (8.6)		
	회 사 원	95 (10.6)	23 (24.2)	9 (9.5)	10 (10.5)	2 (2.1)	42 (44.2)	4 (4.2)	5 (5.3)	95 (10.6)		
	공 무 원 교 사	113 (12.6)	24 (21.2)	10 (8.8)	12 (10.6)	-	57 (50.4)	1 (0.9)	9 (8.0)	113 (12.6)		
	기 타	152 (17.0)	31 (20.4)	13 (8.6)	38 (25.0)	3 (2.0)	51 (33.6)	4 (2.6)	12 (7.9)	152 (17.0)		
전 체		896 (100)	181 (20.2)	67 (7.5)	160 (17.9)	10 (1.1)	375 (41.9)	20 (2.2)	83 (9.3)	896 (100)		

(** $p<0.01$)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22.9%)은 남학생(17.6%)보다 통일의 선결 과제로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45.8%)은 여학생(37.8%)보다 북한의 자유화·개방화를 선결 과제로 중요시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읍·면 지역 학생들은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남북의 경제 교류(16.0%)보다는 이산 가족의 계속적인 방문(20.1%)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회사원(10.5%) 및 공무원 자녀(10.6%)가 이산 가족의 계속적인 상호방문에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자녀(50.4%)는 북한의 개방화·자유화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5)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통일 후 우리 국가는 어떤 체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되어 나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은 각각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첫째, 통일 후 이상적인 국가 체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14>에서와 같이 ① 자유 민주주의 체제(88.6%) ② 공산주의 체제(1.2%) ③ 남북한 혼합 절충 체제(0.2%) ④ 어느 체제라도 좋다(10.0%)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 대부분(88.6%)이 통일 후의 국가의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극소수의 학생(1.2%)이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통일만 된다면 어떤 체제라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10.0%)도 있어 이념보다는 통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박성희·박정선의 선행 연구[40]에 의하면 통일 후 바

40)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논문, pp. 44~45.

<표 14> 통일 후의 이상적인 국가 체제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x^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8 (51.3)	407 (88.9)	3 (0.7)	2 (0.4)	46 (10.0)	458 (100)	3	4.45
	여	435 (48.7)	384 (88.3)	8 (1.8)	-	43 (9.9)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8 (50.2)	402 (89.7)	2 (0.4)	1 (0.2)	43 (9.6)	448 (100)	6	9.83
	서귀포시	178 (19.9)	162 (91.0)	4 (2.2)	-	12 (6.7)	178 (100)		
	읍·면	267 (29.9)	227 (85.0)	5 (1.9)	1 (0.4)	34 (12.7)	267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6 (100.0)	-	-	-	6 (100)	12	6.64
	상	108 (12.1)	92 (85.2)	2 (1.9)	1 (0.9)	13 (12.0)	108 (100)		
	보통	726 (81.3)	646 (89.0)	9 (1.2)	1 (0.1)	70 (9.6)	726 (100)		
	하	45 (5.0)	39 (86.7)	-	-	6 (13.3)	45 (100)		
	하하	8 (0.9)	8 (100.0)	-	-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0 (23.5)	190 (90.5)	3 (1.4)	1 (0.5)	16 (7.6)	210 (100)	15	11.61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7)	218 (88.3)	2 (0.8)	1 (0.4)	26 (10.5)	247 (100)		
	노동	76 (8.5)	69 (90.8)	1 (1.3)	-	6 (7.9)	76 (100)		
	회사원	96 (10.8)	85 (88.5)	-	-	11 (11.5)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7)	93 (82.3)	2 (1.8)	-	18 (15.9)	113 (100)		
	기타	151 (16.9)	136 (90.1)	3 (2.0)	-	12 (7.9)	151 (100)		
전체		893 (100)	791 (88.6)	11 (1.2)	2 (0.2)	89 (10.0)	893 (100)		

람직한 국가 체제를 묻는 질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응답은 중학생(87.6%), 고등학생(84.4%), 대학생(63.8%)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한 혼합 절충 체제'라는 응답은 중학생(8.7%), 고등학생(14.05%), 대학생(31.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완성의 연구[41]에 의하면 '자유 민주주의(52.4%)', '남북의 혼합 절충 체제(39.1%)'로 응답하고 있어 고학력일수록 통일 후의 국가 체제를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남북한 혼합 절충 체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및 교사 자녀 학생이 전체(88.6%)에 비해 '자유 민주주의(82.3%)'를 덜 선호하고 있는 반면,'어느 체제라도 좋다(15.9%)'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일 후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15>에서와 같이 ① 북한땅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8.8%) ② 이산 가족의 고통 및 단일 민족이 재결합 된다(35.1%) ③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35.1%) ④ 거주 공간이 넓어진다(4.1%) ⑤ 전쟁 발생의 방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10.3%) ⑥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4.3%) ⑦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된다(2.4%)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35.1% 학생이 각각 정서적 요소인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 및 단일 민족의 재결합'과 경제적 요소인 '놀라운 경제적 발전 기대'를 들었고 10.3% 학생이 정치적 요소인 '전쟁 발생 방지'라 답하고 있어 통일 후 현실적 고통 해소 및 경제적 번영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민족통일연구원의 설문 조사[42]에 의하면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 및 단일 민족의 재결합(47.4%)', '경제 발전으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22.2%)', '민족 자주성의 확립(14.9%)', '전쟁 발생 방지(9.9%)'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

41) 이완성(1994), 전게논문, p. 21.

42) 민족통일연구원(1993), 전게서, pp. 85~89.

<표 15> 통일 후의 장점

변 인		변 인 구성비	항 목 별 구 성 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계		
성 별	남	459 (51.4)	33 (7.2)	174 (37.9)	147 (32.0)	19 (4.1)	50 (10.9)	20 (4.4)	16 (3.5)	459 (100)	6	13.11*
	여	434 (48.6)	46 (10.6	139 (32.0)	166 (38.2)	18 (4.1)	42 (9.7)	18 (4.1)	5 (1.2)	434 (100)		
거 주 지 별	제주시	450 (50.4)	37 (8.2)	155 (34.4)	154 (34.2)	17 (3.8)	49 (10.9)	27 (6.0)	11 (2.4)	450 (100)	12	16.52
	서귀포시	176 (19.7)	16 (9.1)	51 (29.0)	74 (42.0)	10 (5.7)	17 (9.7)	3 (1.7)	5 (2.8)	176 (100)		
	읍·면	267 (29.9)	26 (9.7)	107 (40.1)	85 (31.8)	10 (3.7)	26 (9.7)	8 (3.0)	5 (1.9)	267 (100)		
생 활 수준별	상 상	6 (0.7)	-	2 (33.3)	2 (33.3)	1 (16.7)	-	-	1 (16.7)	6 (100)	24	26.82
	상	109 (12.2)	4 (3.7)	44 (40.4)	36 (33.0)	4 (3.7)	11 (10.1)	5 (4.6)	5 (4.6)	109 (100)		
	보 통	725 (81.2)	73 (10.1)	248 (34.2)	254 (35.0)	28 (3.9)	77 (10.6)	30 (4.1)	15 (2.1)	725 (100)		
	하	45 (5.0)	2 (4.4)	17 (37.8)	16 (35.6)	4 (8.9)	3 (6.7)	3 (6.7)	-	45 (100)		
	하 하	8 (0.9)	-	2 (25.0)	5 (62.5)	-	1 (12.5)	-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0 (23.5)	22 (10.5)	81 (38.6)	70 (33.3)	8 (3.8)	14 (6.7)	7 (3.3)	8 (3.8)	210 (100)	30	37.81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7)	19 (7.7)	82 (33.2)	95 (38.5)	11 (4.5)	26 (10.5)	11 (4.5)	3 (1.2)	247 (100)		
	노 동	77 (8.6)	6 (7.8)	36 (46.8)	21 (27.3)	4 (5.2)	4 (5.2)	4 (5.2)	2 (2.6)	77 (100)		
	회 사 원	96 (10.8)	8 (8.3)	38 (39.6)	30 (31.3)	2 (2.1)	14 (14.6)	2 (2.1)	2 (2.1)	96 (100)		
	공 무 원 교 사	112 (12.5)	12 (10.7)	29 (25.9)	50 (44.6)	3 (2.7)	13 (11.6)	5 (4.5)	-	112 (100)		
	기 타	151 (16.9)	12 (7.9)	47 (31.1)	47 (31.1)	9 (6.0)	21 (13.9)	9 (6.0)	6 (4.0)	151 (100)		
전 체		893 (100)	79 (8.8)	313 (35.1)	313 (35.1)	37 (4.1)	92 (10.3)	38 (4.3)	21 (2.4)	893 (100)		

(* $p < 0.05$)

한편, 서울리서치의 설문 조사[43]에 의하면 ① 북한땅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12.8%) ② 이산 가족의 아픔이 해결된다(10.8%) ③ 살 장소가 많아진다(8.2%) ④ 경제적 발전(7.8%) 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5.8%) ⑥ 기타(53.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본 연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응답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통일 후의 장점으로 여학생(32.0%)이 남학생(37.9%)보다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 및 단일 민족의 재결합'에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적 발전 기대'에 대해서는 여학생(38.2%)이 남학생(32.0%)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학생이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서 '이산 가족의 고통 해소 및 단일 민족의 재결합(29.0%)'에는 낮은 반응을, '경제적 발전 기대(42.0%)'에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셋째, 통일이 되어 나쁜 점을 묻는 질문에는 <표 16>에서와 같이 ① 의사 소통이 불편하다(24.0%) ② 남북의 경제적 차이로 남북 주민의 대립이 일어난다(33.6%) ③ 남북의 사상적 차이로 잦은 언쟁이 발생한다(27.4%) ④ 국제 경쟁력 약화로 경제가 침체한다(6.6%) ⑤ 북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8.4%)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33.6% 학생이 통일 후 남북의 경제적 대립(빈부 격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사상 차이(27.4%), '의사 소통의 어려운 점(24.9%)'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 후의 장점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상당히 높게 기대하고 있는 한편, 통일 후의 문제점으로도 경제적 혼란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독일의 통일 후에 나타난 경제적인 혼란을 중학생들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50여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이질화 문제 역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3) 서울리서치가 1993. 11. 8. - 11. 21.일에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인 면접법으로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 16> 통일 후의 단점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소계	df	χ^2
성별	남	458 (51.3)	100 (21.8)	164 (35.8)	133 (29.0)	22 (4.8)	39 (8.5)	458 (100)	4	8.81
	여	434 (48.7)	114 (26.3)	136 (31.3)	111 (25.6)	37 (8.5)	36 (8.3)	434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9 (50.3)	100 (22.3)	160 (35.6)	122 (27.2)	34 (7.6)	33 (7.3)	449 (100)	8	9.87
	서귀포시	177 (19.8)	39 (22.0)	52 (29.4)	58 (32.8)	11 (6.2)	17 (9.6)	177 (100)		
	읍·면	266 (29.8)	75 (28.2)	88 (33.1)	64 (24.1)	14 (5.3)	25 (9.4)	266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2 (33.3)	-	1 (16.7)	1 (16.7)	6 (100)	16	17.47
	상	109 (12.2)	34 (31.2)	31 (28.4)	33 (30.3)	5 (4.6)	6 (5.5)	109 (100)		
	보통	724 (81.2)	162 (22.4)	253 (34.9)	200 (27.6)	47 (6.5)	62 (8.6)	724 (100)		
	하	45 (5.0)	14 (31.1)	13 (28.9)	9 (20.0)	5 (11.1)	4 (8.9)	45 (100)		
	하하	8 (0.9)	2 (25.0)	1 (12.5)	2 (25.0)	1 (12.5)	2 (25.0)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4)	64 (30.6)	67 (32.1)	43 (20.6)	11 (5.3)	24 (11.5)	209 (100)	20	52.30***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8)	42 (16.9)	92 (37.1)	81 (32.7)	16 (6.5)	17 (6.9)	248 (100)		
	노동	77 (8.6)	29 (37.7)	25 (32.5)	19 (24.7)	1 (1.3)	3 (3.9)	77 (100)		
	회사원	95 (10.7)	14 (14.7)	42 (44.2)	20 (21.1)	8 (8.4)	11 (11.6)	95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20 (17.9)	32 (28.6)	38 (33.9)	12 (10.7)	10 (8.9)	112 (100)		
	기타	151 (16.9)	45 (29.8)	42 (27.8)	43 (28.5)	11 (7.3)	10 (6.6)	151 (100)		
전체		892 (100)	214 (24.0)	300 (33.6)	244 (27.4)	59 (6.6)	75 (8.4)	892 (100)		

(*** $p<0.001$)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민족통일연구원의 여론 조사[44]에 의하면, '통일 후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 ① 크게 개선(18.8%) ② 다소 개선(40.4%) ③ 마찬가지(1.8%) ④ 다소 약화(25.3%) ⑤ 크게 약화(3.3%)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 후의 빈부 격차 전망'에 대한 응답으로는 ① 크게 개선(3.3%) ② 다소 개선(20.6) ③ 마찬 가지(25.4%) ④ 다소 악화(39.1%) ⑤ 크게 악화(10.9%)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볼 때 일반인 역시 통일 후에 경제 성장을 크게 기대하면서도 빈부 격차 문제 역시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거주지별·생활 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보호자 직업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회사원(44.2%)이 '남북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대립'에 전체(33.6%)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33.9%)인 경우 '남북의 사상적 차이로 인한 대립'에 전체(27.4%)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남북한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남북의 통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최근 발표된 '통일 정책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표 17>에서와 같이 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1.6%) ②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23.1%)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43.9%) ④전혀 들어보지 못했다(31.3%)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7% 학생이 내용을 조금 알거나 또는 모르고 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학생도 31.3%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

---

44) 민족통일연구원(1993), 전게서, pp. 94~95.

<표 17> 우리나라의 통일방안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7 (51.3)	7 (1.5)	109 (23.9)	202 (44.2)	139 (30.4)	457 (100)	3	0.49
	여	433 (48.7)	7 (1.6)	97 (22.4)	189 (43.6)	140 (32.3)	433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9 (50.4)	7 (1.6)	84 (18.7)	187 (41.6)	171 (38.1)	449 (100)	6	51.42***
	서귀포시	175 (19.7)	-	28 (16.0)	90 (51.4)	57 (32.6)	175 (100)		
	읍·면	266 (29.9)	7 (2.6)	94 (35.3)	114 (42.9)	51 (19.2)	266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1 (16.7)	1 (16.7)	3 (50.0)	1 (16.7)	6 (100	12	14.98
	상	108 (12.1)	2 (1.9)	29 (26.9)	45 (41.7)	32 (29.6)	108 (100)		
	보통	723 (81.2)	10 (1.4)	167 (23.1)	321 (44.4)	225 (31.1)	723 (100)		
	하	45 (5.1)	1 (2.2)	8 (17.8)	20 (44.4)	16 (35.6)	45 (100		
	하하	8 (0.9)	-	1 (12.5)	2 (25.0)	5 (6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5)	7 (3.3)	64 (30.6)	93 (44.5)	45 (21.5)	209 (100)	15	39.40***
	사업 및 서비스업	246 (27.6)	2 (0.8)	47 (19.1)	118 (48.0)	79 (32.1)	246 (100)		
	노동	76 (8.5)	1 (1.3)	7 (9.2)	43 (56.6)	25 (32.9)	76 (100)		
	회사원	96 (10.8)	3 (3.1)	23 (24.0)	37 (38.5)	33 (34.4)	96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	31 (27.7)	40 (35.7)	41 (36.6)	112 (100)		
	기타	151 (17.0)	1 (0.7)	34 (225)	60 (39.7)	56 (37.1)	151 (100)		
전체		890 (100)	14 (1.6)	206 (23.1)	391 (43.9)	279 (31.3)	890 (100)		

(*** $p<0.001$)

정책이 엄연히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통일정책에 대한 부분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김희의 연구[45]에 의하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도'에서 ① 거의 모르고 있다(43.3%) ② 조금 알고 있다(32.4%) ③ 전혀 모르고 있다(21.3%) ④ 잘알고 있다(3.1%)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완성의 연구[46]에서도 ① 확실히 알고 있다(2.3%) ② 알고 있다(45.9%) ③ 잘 모르겠다(43.2%) ④ 모르고 있다(6.1%) ⑤ 전혀 모르고 있다(3.4%)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성희·박정선의 연구[47]에서도 ① 정확히 알고있다(3.4%) ② 조금 알고 있다(39.4%) ③ 들었으나 내용은 모른다(47.9%) ④ 전혀 듣지 못했다(8.9%)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력별로 보면,'알고 있다'는 반응으로 중학생(34.4%), 고등학생(38.9%), 대학생(58.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낮은 인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학력일수록 높은 인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는 반응으로 제주시 학생(18.7%), 서귀포시 학생(16.0%)에 비해서 읍·면 지역 학생(35.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56.6%)',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32.9%)'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표 5>에서처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듯이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표 18>에서와 같이 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3.0%) ②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19.7%) ③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26.6%) ④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51.3%)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45) 김희(1993), 전게논문, pp. 32~33.

46)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26~27.

47)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논문, pp. 49~50.

<표 18> 북한의 통일 방안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60 (51.4)	8 (1.7)	93 (20.2)	101 (22.0)	258 (56.1)	460 (100)	3	15.57**
	여	435 (48.6)	19 (4.4)	83 (19.1)	132 (30.3)	201 (46.2)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4)	13 (2.9)	72 (16.0)	97 (21.5)	269 (59.6)	451 (100)	6	48.91***
	서귀포시	177 (19.8)	2 (1.1)	26 (14.7)	53 (29.9)	96 (54.2)	177 (100)		
	읍·면	267 (29.8)	12 (4.5)	78 (29.2)	83 (31.1)	94 (35.2)	267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	-	2 (33.3)	4 (66.7)	6 (100)	12	11.37
	상	109 (12.2)	4 (3.7)	29 (26.6)	30 (27.5)	46 (42.2)	109 (100)		
	보통	727 (81.2)	22 (3.0)	141 (19.4)	184 (25.3)	380 (52.3)	727 (100)		
	하	45 (5.0)	1 (2.2)	6 (13.3)	15 (33.3)	23 (51.1)	45 (100)		
	하하	8 (0.9)	-	-	2 (25.0)	6 (75.0)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0 (23.5)	9 (4.3)	51 (24.3)	62 (29.5)	88 (41.9)	210 (100)	15	26.53*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7)	9 (3.6)	40 (16.1)	64 (25.8)	135 (54.4)	248 (100)		
	노동	77 (8.6)	1 (1.3)	10 (13.0)	24 (31.2)	42 (54.5)	77 (100)		
	회사원	96 (10.7)	3 (3.1)	29 (30.2)	17 (17.7)	47 (49.0)	96 (100)		
	공무원 교사	112 (12.5)	3 (2.7)	19 (17.0)	24 (21.4)	66 (58.9)	112 (100)		
	기타	152 (17.0)	2 (1.3)	27 (17.8)	42 (27.6)	81 (53.3)	152 (100)		
전체		895 (100)	27 (3.0)	176 (19.7)	233 (26.0)	459 (51.3)	895 (100)		

(* $p<0.05$, ** $p<0.01$, *** $p<0.001$)

전체 응답자의 77.3%의 학생이 '내용을 모르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여 남한의 통일정책보다도 더욱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이완성의 연구[48]를 보면 ① 확실히 알고 있다(1.2%) ② 알고 있다(22.9%) ③ 잘 모르겠다(47.5%) ④ 모르고 있다(14.6%) ⑤ 전혀 모르고 있다(13.8%)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성희·박정선의 연구[49]에서는 ① 정확히 알고 있다(2.9%) ② 조금 알고 있다(29.4%) ③ 들었으나 내용은 모른다(35.1%) ④ 전혀 듣지 못했다(32.3%)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알고 있다'라는 응답에 중학생(21.3%), 고등학생(24.8%), 대학생(61.9%)순으로 응답해 남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도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응답에 남학생(56.1%)이 여학생(46.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알고 있다'라는 반응은 읍·면 지역 학생(29.2%)이 제주시 지역 학생(16.0%)이나 서귀포시 지역 학생(14.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반응은 제주시 지역 학생(59.6%), 서귀포시 지역 학생(54.2%), 읍·면 지역 학생(35.2%)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 지역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41.9%)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문항에 낮은 반응을, 회사원 자녀 학생(30.2%)은 '조금 알고 있다'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통일 문제의 논의 방식

통일 문제의 개방 정도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 문

48)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29~30.

49) 박성희·박정선(1992), 전게논문, pp. 51~52.

<표 19> 통일 문제의 개방 정도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60 (51.4)	244 (53.0)	94 (20.4)	25 (5.4)	97 (21.1)	460 (100)	3	11.68**
	여	435 (48.6)	190 (43.7)	103 (23.7)	44 (10.1)	98 (22.5)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4)	212 (47.0)	106 (23.5)	31 (6.9)	102 (22.6)	451 (100)	6	6.56
	서귀포시	177 (19.8)	82 (46.3)	37 (20.9)	13 (7.3)	45 (25.4)	177 (100)		
	읍·면	267 (29.8)	140 (52.4)	54 (20.2)	25 (9.4)	48 (18.0)	267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	1 (16.7)	3 (50.0)	6 (100)	12	12.76
	상	109 (12.2)	47 (43.1)	28 (25.7)	8 (7.3)	26 (23.9)	109 (100)		
	보통	727 (81.2)	360 (49.5)	161 (22.1)	56 (7.7)	150 (20.6)	727 (100)		
	하	45 (5.0)	19 (42.2)	8 (17.8)	4 (8.9)	14 (31.1)	45 (100)		
	하하	8 (0.9)	6 (75.0)	-	-	2 (25.0)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0 (23.5)	96 (45.7)	39 (18.6)	25 (11.9)	50 (23.8)	210 (100)	15	26.09*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7)	128 (51.6)	64 (25.8)	17 (6.9)	39 (15.7)	248 (100)		
	노동	77 (8.6)	39 (50.6)	12 (15.6)	5 (6.5)	21 (27.3)	77 (100)		
	회사원	96 (10.7)	51 (53.1)	22 (22.9)	3 (3.1)	20 (20.8)	96 (100)		
	공무원 교사	112 (12.5)	51 (45.5)	31 (27.7)	9 (8.0)	21 (18.8)	112 (100)		
	기타	152 (17.0)	69 (45.4)	29 (19.1)	10 (6.6)	44 (28.9)	152 (100)		
전체		895 (100)	434 (48.5)	197 (22.0)	69 (7.7)	195 (21.8)	895 (100)		

(* $p<0.05$, ** $p<0.01$)

제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어떤 점을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보면 <표 19>, <표 20>과 같다.

첫째, 통일 문제에 대한 개방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19>에서와 같이 ① 언제, 어디서,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48.5%) ② 국가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22.0%) ③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와 전문가들만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7%) ④ 잘 모르겠다(21.8%)라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대다수(70.5%)가 '완전 개방' 또는 '되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 문제는 정부 주도하에서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합의에 의해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남학생(53.0%)이 여학생(43.7%)보다 '완전 개방'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은 여학생(10.1%)이 남학생(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은 '국가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한 되도록 개방해야 한다(15.6%)'는 응답에 낮은 반응을 보인 반면, '잘 모르겠다(27.3%)'는 응답은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통일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20>에서와 같이 ① 기성세대 중심으로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19.5%) ②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45.1%) ③ 실현 가능성이 적다(11.4%) ④ 남북한을 적대·대립 관계로만 생각한다(16.4%) ⑤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다(7.6%)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통일 문제가 정부나 기성세대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0> 통일 논의의 문제점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57 (51.2)	80 (17.5)	227 (49.7)	45 (9.8)	73 (16.0)	32 (7.0)	457 (100)	4	8.96
	여	435 (48.8)	94 (21.6)	175 (40.2)	57 (13.1)	73 (16.8)	36 (8.3)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9 (50.3)	80 (17.8)	188 (41.9)	50 (11.1)	93 (20.7)	38 (8.5)	449 (100)	8	17.60*
	서귀포시	177 (19.8)	44 (24.9)	81 (45.8)	19 (10.7)	20 (11.3)	13 (7.3)	177 (100)		
	읍·면	266 (29.8)	50 (18.8)	133 (50.0)	33 (12.4)	33 (12.4)	17 (6.4)	266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	2 (33.3)	1 (16.7)	2 (33.3)	1 (16.7)	6 (100)	16	13.80
	상	108 (12.1)	30 (27.8)	43 (39.8)	10 (9.3)	16 (14.8)	9 (8.3)	108 (100)		
	보통	725 (81.3)	132 (18.2)	333 (45.9)	84 (11.6)	121 (16.7)	55 (7.6)	725 (100)		
	하	45 (5.0)	10 (22.2)	19 (42.2)	7 (15.6)	7 (15.6)	2 (4.4)	45 (100)		
	하하	8 (0.9)	2 (25.0)	5 (62.5)	-	-	1 (1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0 (23.5)	34 (16.2)	108 (51.4)	23 (11.0)	24 (11.4)	21 (10.0)	210 (100)	20	23.95
	사업 및 서비스업	248 (27.8)	64 (25.8)	103 (41.5)	21 (8.5)	44 (17.7)	16 (6.5)	248 (100)		
	노동	76 (8.5)	15 (19.7)	34 (44.7)	12 (15.8)	11 (14.5)	4 (5.3)	76 (100)		
	회사원	95 (10.7)	16 (16.8)	45 (47.4)	10 (10.5)	16 (16.8)	8 (8.4)	95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20 (17.9)	47 (42.0)	17 (15.2)	22 (19.6)	6 (5.4)	112 (100)		
	기타	151 (16.9)	25 (16.6)	65 (43.0)	19 (12.6)	29 (19.2)	13 (8.6)	151 (100)		
전체		892 (100)	174 (19.5)	402 (45.1)	102 (11.4)	146 (16.4)	68 (7.6)	892 (100)		

(* $p<0.05$)

배경 변인별 반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응답에 남학생(49.7%)이 여학생(40.2%)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읍·면 지역 학생(50.0%)이 시 지역 학생보다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8) 통일 승계 세대로서의 인식

"통일을 이루는 데 주체가 되는 세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남북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통해 중학생들의 통일 승계세대로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21>, <표 22>와 같다.

첫째, 통일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표 21>에서와 같이 ①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25.4%) ② 기성 세대(6.9%) ③ 미래 세대(8.3%) ④ 모든 국민(59.4%)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84.8%)의 청소년들이 통일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지난날 통일 문제를 기성 세대의 전유물로 여겼던 생각에 강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통일의 주체가 미래 세대라고 응답한 학생도 8.3%에 이르고 있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중학생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읍·면 지역 학생(64.2%)이 시 지역 학생(56.9%)보다 높게 통일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답하고 있다.

둘째, 중학생들의 통일에의 기여 정도로는 <표 22>에서와 같이 ① 충분한 능력이 있다(26.0%), ②조금 능력이 있다(42.4%), ③ 별로 능력이 없다(24.6%), ④ 전혀 능력이 없다(7.0%)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야한다고 응답한 반응과 일관되게 통일에의 기여 정도를 묻

<표 21> 통일의 주체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9 (51.2)	111 (24.2)	27 (5.9)	35 (7.6)	286 (62.3)	459 (100)	3	3.88
	여	437 (48.8)	117 (26.8)	35 (8.0)	39 (8.9)	246 (56.3)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119 (26.4)	29 (6.4)	42 (9.3)	261 (57.9)	451 (100)	6	17.58**
	서귀포시	177 (19.8)	45 (25.4)	23 (13.0)	10 (5.6)	99 (55.9)	177 (100)		
	읍·면	268 (29.9)	64 (23.9)	10 (3.7)	22 (8.2)	172 (64.2)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4 (66.7)	1 (16.7)	-	1 (16.7)	6 (100)	12	21.18*
	상	109 (12.2)	35 (32.1)	12 (11.0)	7 (6.4)	55 (50.5)	109 (100)		
	보통	728 (81.3)	174 (23.9)	44 (6.0)	63 (8.7)	447 (61.4)	728 (100)		
	하	45 (5.0)	14 (31.1)	4 (8.9)	2 (4.4)	25 (55.6)	45 (100)		
	하하	8 (0.9)	1 (12.5)	1 (12.5)	2 (25.0)	4 (50.0)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45 (21.3)	11 (5.2)	19 (9.0)	136 (64.5)	211 (100)	15	0.29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72 (28.9)	16 (6.4)	16 (6.4)	145 (58.2)	249 (100)		
	노동	77 (8.6)	22 (28.6)	7 (9.1)	5 (6.5)	43 (55.8)	77 (100)		
	회사원	96 (10.7)	29 (30.2)	8 (8.3)	7 (7.3)	52 (54.2)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28 (24.8)	13 (11.5)	13 (11.5)	59 (52.2)	113 (100)		
	기타	150 (16.7)	32 (21.3)	7 (4.7)	14 (9.3)	97 (64.7)	150 (100)		
전체		896 (100)	228 (25.4)	62 (6.9)	74 (8.3)	532 (59.4)	896 (100)		

(* $p<0.05$, ** $p<0.01$)

<표 22> 청소년들의 통일에의 기여 정도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9 (51.2)	117 (25.5)	211 (46.0)	107 (23.3)	24 (5.2)	459 (100)	3	7.85*
	여	437 (48.8)	116 (26.5)	169 (38.7)	113 (25.9)	39 (8.9)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0 (50.2)	109 (24.2)	187 (41.6)	117 (26.0)	37 (8.2)	450 (100)	6	8.20
	서귀포시	178 (19.9)	45 (25.3)	72 (40.4)	50 (28.1)	11 (6.2)	178 (100)		
	읍·면	268 (29.9)	79 (29.5)	121 (45.1)	53 (19.8)	15 (5.6)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3 (50.0)	2 (33.3)	1 (16.7)	-	6 (100)	12	15.96
	상	109 (12.2)	37 (33.9)	38 (34.9)	28 (25.7)	6 (5.5)	109 (100)		
	보통	728 (81.3)	184 (25.3)	315 (43.3)	176 (24.2)	53 (7.3)	728 (100)		
	하	45 (5.0)	6 (13.3)	24 (53.3)	11 (24.4)	4 (8.9)	45 (100)		
	하하	8 (0.9)	3 (37.5)	1 (12.5)	4 (50.0)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57 (27.0)	93 (44.1)	49 (23.2)	12 (5.7)	211 (100)	15	9.61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70 (28.1)	97 (39.0)	66 (26.5)	16 (6.4)	249 (100)		
	노동	77 (8.6)	17 (22.1)	34 (44.2)	21 (27.3)	5 (6.5)	77 (100)		
	회사원	96 (10.7)	29 (30.2)	42 (43.8)	20 (20.8)	5 (5.2)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24 (21.2)	52 (46.0)	28 (24.8)	9 (8.0)	113 (100)		
	기타	150 (16.7)	36 (24.0)	62 (41.3)	36 (24.0)	16 (10.7)	150 (100)		
전체		896 (100)	233 (26.0)	380 (42.4)	220 (24.6)	63 (7.0)	896 (100)		

(* $p<0.05$)

는 질문에서도 68.4%의 학생이 남북 통일에 '충분히 또는 조금 능력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0%에 지나지 않고 있어 통일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청소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조금 능력이 있다'라는 반응에 남학생(46.0%)이 여학생(38.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배경 변인별 반응은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9) 남북 분단에 대한 인식

분단의 원인 및 고통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23>, <표 24>와 같다.

첫째, 분단의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23>에서와 같이 ① 남한 지도자들의 책임(3.1%) ② 민족의 내부 분열(22.9%) ③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46.9%) ④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27.1%)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46.9% 학생이 분단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머지 53.1%의 학생은 분단의 원인을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정치적 산물로서 소련의 야심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 낳은 '국제형 분단'인 동시에 민족의 분열 및 6.25전쟁으로 더욱 분단의 고착화 전면화가 이루어진 '민족적 분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분단의 원인은 미·소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더 기인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분단의 원인으로 내부적 요인을 크게 지적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학생들에게 분단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으며 기성세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선행 연구를 보면, 김희의 연구[50] 에서는 분단의 원

50) 김희(1993), 전게논문, pp. 19~22.

<표 23> 분단의 원인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61 (51.4)	9 (2.0)	110 (23.9)	209 (45.3)	133 (28.9)	461 (100)	3	6.18
	여	436 (48.6)	19 (4.4)	95 (21.8)	212 (48.6)	110 (25.2)	436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16 (3.5)	108 (23.9)	206 (45.7)	121 (26.8)	451 (100)	6	11.41
	서귀포시	178 (19.8)	6 (3.4)	31 (17.4)	101 (56.7)	40 (22.5)	178 (100)		
	읍·면	268 (29.9)	6 (2.2)	66 (24.6)	114 (42.5)	82 (30.6)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	1 (16.7)	2 (33.3)	3 (50.3)	6 (100)	12	11.01
	상	109 (12.2)	5 (4.6)	24 (22.0)	53 (48.6)	27 (24.8)	109 (100)		
	보통	729 (81.3)	19 (2.6)	167 (22.9)	347 (47.6)	196 (26.9)	729 (100)		
	하	45 (5.0)	4 (8.9)	11 (24.4)	15 (33.3)	15 (33.3)	45 (100)		
	하하	8 (0.9)	-	2 (25.0)	4 (50.0)	2 (25.0)	8 (100)		
보호자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4 (1.9)	45 (21.3)	100 (47.4)	62 (29.4)	211 (100)	15	18.78
	사업및서비스업	248 (27.6)	6 (2.4)	61 (24.6)	124 (50.0)	57 (23.0)	248 (100)		
	노동	77 (8.6)	5 (6.5)	15 (19.5)	29 (37.7)	28 (36.4)	77 (100)		
	회사원	96 (10.7)	1 (1.0)	27 (28.1)	44 (45.8)	24 (25.0)	96 (100)		
	공무원교사	113 (12.6)	5 (4.4)	25 (22.1)	58 (51.3)	25 (22.1)	113 (100)		
	기타	152 (16.9)	7 (4.6)	32 (21.1)	66 (43.4)	47 (30.9)	152 (100)		
전체		897 (100)	28 (3.1)	205 (22.9)	421 (46.9)	243 (27.1)	897 (100)		

인을 외부적 요인(25.7%)보다는 내부적 요인(74.3%)으로 보고 있으며, 이완성의 연구[51]에서도 분단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39.8%), 외부적 요인(46.7%), 잘 모르겠다(13.6%)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지역 학생(56.7%)이 타지역 학생보다 분단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36.4%)이 '김일성의 권력 욕심'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단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24>에서와 같이 ① 이산 가족의 아픔(36.9%) ② 동족끼리 총칼을 맞대고 있는 아픔(25.3%) ③ 무기 구입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9.7%) ④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21.6%) ⑤ 남북의 대립으로 힘없는 국가로 떨어짐(6.5%)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62.2%가 분단의 고통으로 동족의 아픔을, 21.6%는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지적하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력의 약화 등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분단의 고통을 동족끼리도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23.7%)이 여학생(19.5%)보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산 가족의 아픔(31.5%)'과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17.4%)'에는 낮은 반응을, '동족끼리 총칼을 맞대고 있는 고통(31.5%)'에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17~18.

<표 24> 분단의 고통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60 (51.3)	178 (38.7)	100 (21.7)	41 (8.9)	109 (23.7)	32 (7.0)	460 (100)	4	8.39
	여	437 (48.7)	153 (35.0)	127 (29.1)	46 (10.5)	85 (19.5)	26 (5.9)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165 (36.6)	102 (22.6)	53 (11.8)	103 (22.8)	28 (6.2)	451 (100)	8	20.24**
	서귀포시	178 (19.8)	56 (31.5)	56 (31.5)	16 (9.0)	31 (17.4)	19 (10.7)	178 (100)		
	읍·면	268 (29.9)	110 (41.0)	69 (25.7)	18 (6.7)	60 (22.4)	11 (4.1)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3 (50.0)	1 (16.7)	-	1 (16.7)	1 (16.7)	6 (100)	16	36.24**
	상	109 (12.2)	42 (38.5)	24 (22.0)	12 (11.0)	28 (25.7)	3 (2.8)	109 (100)		
	보통	729 (81.3)	265 (36.4)	187 (25.7)	71 (9.7)	160 (21.9)	46 (6.3)	729 (100)		
	하	45 (5.0)	19 (42.2)	14 (31.1)	4 (8.9)	4 (8.9)	4 (8.9)	45 (100)		
	하하	8 (0.9)	2 (25.0)	1 (12.5)	-	1 (12.5)	4 (50.0)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81 (38.4)	52 (24.6)	18 (8.5)	46 (21.8)	14 (6.6)	211 (100)	20	1052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85 (34.1)	62 (24.9)	26 (10.4)	60 (24.1)	16 (6.4)	249 (100)		
	노동	76 (8.5)	33 (43.3)	21 (27.6)	6 (7.9)	13 (17.1)	3 (3.9)	76 (100)		
	회사원	96 (10.7)	40 (41.7)	23 (24.0)	10 (10.4)	17 (17.7)	6 (6.3)	96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33 (29.2)	34 (30.1)	12 (10.6)	24 (21.2)	10 (8.8)	113 (100)		
	기타	152 (16.9)	59 (38.8)	35 (23.0)	15 (9.9)	34 (22.4)	9 (5.9)	152 (100)		
전체		897 (100)	331 (36.9)	227 (25.3)	87 (9.7)	194 (21.6)	58 (6.5)	897 (100)		

(** $p<0.01$)

2. 北韓觀

통일의식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북한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인지,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남북 동질성 회복 방안 등 총 13문항을 조사 분석하였다.

1) 북한에 대한 관심

"남북한간의 상호 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표 25>에서와 같이 ① 방문하고 싶다(84.2%) ② 방문하고 싶지 않다(15.8%)라고 반응을 보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여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배경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거주지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제주시 학생(81.4%)이나 서귀포시 학생(83.7%)보다 읍·면 지역 학생(89.1%)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녀 학생(90.9%)이나 회사원 자녀 학생(87.4%)이 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 자녀 학생(80.6%)과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80.5%)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북한에 대한 인지

북한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은 <표 26>, <표 27>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표 26>과 같이 ① 매우

<표 25> 북한 방문 의사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소계		
성별	남	458 (51.3)	385 (84.1)	73 (15.9)	458 (100)	1	0.00
	여	434 (48.7)	366 (84.3)	68 (15.7)	434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7 (50.1)	364 (81.4)	83 (18.6)	447 (100)	2	7.50*
	서귀포시	178 (20.0)	149 (83.7)	29 (16.3)	178 (100)		
	읍·면	267 (29.9)	238 (89.1)	29 (10.9)	267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5 (83.3)	1 (16.7)	6 (100)	4	4.24
	상	109 (12.2)	86 (78.9)	23 (21.1)	109 (100)		
	보통	724 (81.2)	615 (84.9)	109 (15.1)	724 (100)		
	하	45 (5.0)	37 (82.2)	8 (17.8)	45 (100)		
	하하	8 (0.9)	8 (100.0)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7)	178 (84.4)	33 (15.6)	211 (100)	5	7.73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7)	199 (80.6)	48 (19.4)	247 (100)		
	노동	77 (8.6)	62 (80.5)	15 (19.5)	77 (100)		
	회사원	95 (10.7)	83 (87.4)	12 (12.6)	95 (100)		
	공무원·교사	110 (12.3)	100 (90.9)	10 (9.1)	110 (100)		
	기타	152 (17.0)	129 (84.9)	23 (15.1)	152 (100)		
전체		892 (100)	751 (84.2)	141 (15.8)	892 (100)		

(* $p<0.05$)

<표 26>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소계	df	χ^2
성별	남	460 (51.3)	15 (3.3)	77 (16.7)	188 (40.9)	166 (36.1)	14 (3.0)	460 (100)	4	3.81
	여	437 (48.7)	18 (4.1)	80 (18.3)	156 (35.7)	163 (37.3)	20 (4.6)	437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18 (4.0)	64 (14.2)	167 (37.0)	180 (39.9)	22 (4.9)	451 (100)	8	20.45**
	서귀포시	178 (19.8)	2 (1.1)	31 (17.4)	71 (39.9)	67 (37.6)	7 (3.9)	178 (100)		
	읍·면	268 (29.9)	13 (4.9)	62 (23.1)	106 (39.6)	82 (30.6)	5 (1.9)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1 (16.7)	2 (33.3)	1 (16.7)	-	6 (100)	16	21.17
	상	109 (12.2)	3 (2.8)	19 (17.4)	43 (39.4)	41 (37.6)	3 (2.8)	109 (100)		
	보통	729 (81.3)	26 (3.6)	130 (17.8)	283 (38.8)	261 (35.8)	29 (4.0)	729 (100)		
	하	45 (5.0)	2 (4.4)	6 (13.3)	14 (31.1)	21 (46.7)	2 (4.4)	45 (100)		
	하하	8 (0.9)	-	1 (12.5)	2 (25.0)	5 (62.5)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12 (5.7)	33 (15.6)	90 (42.7)	70 (33.2)	6 (2.8)	211 (100)	20	20.89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9 (3.6)	48 (19.3)	94 (37.8)	88 (35.3)	10 (4.0)	249 (100)		
	노동	77 (8.6)	3 (3.9)	10 (13.0)	28 (36.4)	33 (42.9)	3 (3.0)	77 (100)		
	회사원	96 (10.7)	4 (4.2)	14 (14.6)	40 (41.7)	37 (38.5)	1 (1.0)	96 (100)		
	공무원 교사	112 (12.5)	1 (0.9)	25 (22.3)	45 (40.2)	36 (32.1)	5 (4.5)	112 (100)		
	기타	152 (16.9)	4 (2.6)	27 (17.8)	47 (30.9)	65 (42.8)	9 (5.9)	152 (100)		
전체		897 (100)	33 (3.7)	157 (17.5)	344 (38.4)	329 (36.7)	34 (3.8)	897 (100)		

(** $p<0.01$)

많이 알고 있다(3.7%) ② 약간 많이 알고 있다(17.5%) ③ 보통이다(38.4%) ④ 조금 알고 있다(36.5%) ⑤ 전혀 모른다(3.8%)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며, 거주지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읍·면 지역 학생(23.1%)이 '약간 많이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 관련 지식의 획득원을 묻는 질문에는 <표 27>과 같이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73.2%) ② 학교 교육(19.3%) ③ 부모형제 및 친척(1.2%) ④ 각종 북한 관련서적(5.0%) ⑤ 주변의 친구(1.4%)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 반응을 보면, 대중 매체가 가장 중요한 지식 획득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김희의 연구[52]에서도 가장 주된 지식원은 대중 매체(81.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완성의 연구[53]에서도 대중 매체(84.8%)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보다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교육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개선되야 할 문제라 본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2.3%)이 남학생(0.2%)보다 '부모 형제 및 친척'으로부터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거주 학생(81.7%)이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 학교 교육 보다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북한 관련 지식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2) 김희(1993), 전게논문, pp. 68~69.

53)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53~54.

<표 27> 북한 관련 지식의 획득원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54 (51.2)	333 (73.3)	86 (18.9)	1 (0.2)	27 (5.9)	7 (1.5)	454 (100)	4	9.93*
	여	433 (48.8)	316 (73.0)	85 (19.6)	10 (2.3)	17 (3.9)	5 (1.2)	433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4 (50.1)	313 (70.5)	91 (20.5)	4 (0.9)	28 (6.3)	8 (1.8)	444 (100)	8	14.58
	서귀포시	175 (19.7)	143 (81.7)	25 (14.3)	1 (0.6)	6 (3.4)	-	175 (100)		
	읍·면	268 (30.2)	193 (72.0)	55 (20.5)	6 (2.2)	10 (3.7)	4 (1.5)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1 (16.7)	-	2 (33.3)	1 (16.7)	6 (100)	16	26.86*
	상	105 (11.8)	73 (69.5)	22 (21.0)	1 (1.0)	7 (6.7)	2 (1.9)	105 (100)		
	보통	724 (81.6)	537 (74.2)	136 (18.8)	9 (1.2)	34 (4.7)	8 (1.1)	724 (100)		
	하	44 (5.0)	32 (72.7)	9 (20.5)	1 (2.3)	1 (2.3)	1 (2.3)	44 (100)		
	하하	8 (0.9)	5 (62.5)	3 (37.5)	-	-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6)	150 (71.8)	40 (19.1)	5 (2.4)	9 (4.3)	5 (2.4)	209 (100)	20	17.25
	사업 및 서비스업	245 (27.6)	185 (75.5)	47 (19.2)	2 (0.8)	7 (2.9)	4 (1.6)	245 (100)		
	노동	75 (8.5)	58 (77.3)	12 (16.0)	1 (1.3)	3 (4.0)	1 (1.3)	75 (100)		
	회사원	94 (10.6)	68 (72.3)	16 (17.0)	1 (1.1)	9 (9.6)	-	94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83 (74.1)	20 (17.9)	1 (0.9)	7 (6.3)	1 (0.9)	112 (100)		
	기타	152 (17.1)	105 (69.1)	36 (23.7)	1 (0.7)	9 (5.9)	1 (0.7)	152 (100)		
전체		887 (100)	649 (73.2)	171 (19.3)	11 (1.2)	44 (5.0)	12 (1.4)	887 (100)		

(* $p<0.05$)

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을 다음 중 고른다면?"이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응은 <표 28>, <표 29>와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반응은 <표 28>과 같이 ① 이산 가족의 아픔(6.9%) ② 통일(5.6%) ③ 가난한 북한 동포의 모습(9.5%) ④ 한민족(5.2%) ⑤ 자유가 없는 폐쇄된 국가(15.4%) ⑥ 공산주의(22.8%) ⑦ 김일성·김정일(15.4%) ⑧ 이질적인 요소(2.1%) ⑨ 6.25전쟁(6.2%) ⑩ 기타(10.9%)라는 반응을 보였다[54].

전체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산 가족의 고통(6.9%)', '통일(5.6%)', '가난한 북한 동포의 모습(9.5%)', '한민족(5.2%)'을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72.8%의 학생이 북한의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코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수 있도

---

54) 위의 10가지 항목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가족의 고통 - 38선, 부모의 고향, 민족의 분열
② 통일 -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통일이 되야한다.
③ 불쌍한 북한 동포의 모습 - 경제적 어려움, 굶는 모습, 식량 부족, 잘못사는 곳, 도와줘야할 곳, 식량 배급, 강냉이죽
④ 한민족 - 우리와 같은 민족, 한 민족이 세운 국가, 한 핏줄, 우리(같은)민족
⑤ 자유가 없는 폐쇄적인 국가 - 강제성, 자유가 없다, 독재정치, 고립된 나라
⑥ 공산주의 - 사회주의, 공산당
⑦ 김일성·김정일 - 김일성의 혹, 김일성의 모습
⑧ 이질적인 요소 - 말씨,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상한 복장, 다른 사상(이념), 여학생의 빨간 핀, 하얀 저고리
⑨ 6.25전쟁 - 핵무기, 북한 군인들, 전쟁 공포, 전쟁
⑩ 기타 - 빨갱이, 백두산, 금강산, 대립 관계, 고집스러움, 도끼만행 사건, 평양, 인공기, 도둑놈, 무조건 싫다, 무섭다, 이기적인 나라, 땅굴, 북한산, 축구, 망명자, 협동 농장, 빨간꽃, 깨끗한 자연 등

<표 28> 북한에 대한 첫 인상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계		
성별	남	444	30	16	54	14	91	91	65	12	22	49	444	9	42.75***
		(51.7)	(6.8)	(3.6)	(12.2)	(3.2)	(20.5)	(20.5)	(14.6)	(2.7)	(5.0)	(11.0)	(100)		
	여	415	29	32	28	31	41	105	67	6	31	45	415		
		(48.3)	(7.0)	(7.7)	(6.7)	(7.5)	(9.9)	(25.3)	(16.1)	(1.4)	(7.5)	(10.8)	(100)		
거주지별	제주시	432	30	27	38	19	52	103	75	7	32	54	432	18	25.50
		(50.3)	(6.9)	(5.1)	(8.8)	(4.4)	(12.0)	(23.8)	(17.4)	(1.6)	(7.4)	(12.5)	(100)		
	서귀포시	173	12	7	18	10	33	35	22	8	11	17	173		
		(20.1)	(6.9)	(4.0)	(10.4)	(5.8)	(19.1)	(20.2)	(12.7)	(4.6)	(6.4)	(9.8)	(100)		
	읍·면	254	17	19	26	16	47	58	35	3	10	23	254		
		(29.6)	(6.7)	(7.5)	(10.2)	(6.3)	(18.5)	(22.8)	(13.8)	(1.2)	(3.9)	(9.1)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1	1	-	-	1	1	1	-	-	1	6	36	39.95
		(0.7)	(16.7)	(16.7)			(16.7)	(16.7)	(16.7)			(16.7)	(100)		
	상	102	5	3	7	8	19	24	14	1	6	15	102		
		(11.9)	(4.9)	(2.9)	(6.9)	(7.8)	(18.6)	(23.5)	(13.7)	(1.0)	(5.9)	(14.7)	(100)		
	보통	699	46	41	65	35	105	166	114	15	43	69	699		
		(81.4)	(6.6)	(5.9)	(9.3)	(5.0)	(15.0)	(23.7)	(16.3)	(2.1)	(6.2)	(9.9)	(100)		
	하	44	6	3	7	2	6	4	3	1	4	8	44		
		(5.1)	(13.6)	(6.8)	(15.9)	(4.5)	(13.6)	(9.1)	(6.8)	(2.3)	(9.1)	(18.2)	(100)		
	하하	8	1	-	3	-	1	1	-	1	-	1	8		
		(0.9)	(12.5)		(37.5)		(12.5)	(12.5)		(12.5)		(12.5)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 어업	203	13	17	22	15	37	42	31	3	7	16	203	45	39.04
		(23.6)	(6.4)	(8.4)	(10.8)	(7.4)	(18.2)	(20.7)	(15.3)	(1.5)	(3.4)	(7.9)	(100)		
	사업·서비스업	241	19	8	21	10	32	62	36	7	16	30	241		
		(28.1)	(7.9)	(3.3)	(8.7)	(4.1)	(13.3)	(25.7)	(14.9)	(2.9)	(6.6)	(12.4)	(100)		
	노동	74	10	5	7	5	11	18	8	1	4	5	74		
		(8.6)	(13.5)	(6.8)	(9.5)	(6.8)	(14.9)	(24.3)	(10.8)	(1.4)	(5.4)	(6.8)	(100)		
	회사원	93	6	6	7	5	14	19	13	2	10	11	93		
		(10.8)	(6.5)	(6.5)	(7.5)	(5.4)	(15.1)	(20.4)	(14.0)	(2.2)	(10.8)	(11.8)	(100)		
	공무원 및교사	110	4	6	8	6	18	26	19	2	9	12	110		
		(12.8)	(3.6)	(5.5)	(7.3)	(5.5)	(16.4)	(23.6)	(17.3)	(1.8)	(8.2)	(10.9)	(100)		
	기타	138	7	6	17	4	20	29	25	3	7	20	138		
		(16.1)	(5.1)	(4.3)	(12.3)	(2.9)	(14.5)	(21.0)	(18.1)	(2.2)	(5.1)	(14.5)	(100)		
전체		859	59	48	82	45	132	196	132	18	53	94	859		
		(100)	(6.9)	(5.6)	(9.5)	(5.2)	(15.4)	(22.8)	(15.4)	(2.1)	(6.2)	(10.9)	(100)		

(*** $p<0.001$)

<표 29>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변 인		변 인 구성비	항 목 별 구 성 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⑥	소계		
성 별	남	453 (51.1)	41 (9.1)	300 (66.2)	20 (4.4)	18 (4.0)	65 (14.3)	9 (2.0)	453 (100)	5	18.94**
	여	434 (48.9)	66 (15.2)	244 (56.2)	19 (4.4)	33 (7.6)	55 (12.7)	17 (3.9)	434 (100)		
거 주 지 별	제 주 시	445 (50.2)	54 (12.1)	275 (61.8)	18 (4.0)	27 (6.1)	57 (12.8)	14 (3.1)	445 (100)	10	7.09
	서귀포시	174 (19.6)	21 (12.1)	116 (66.7)	7 (4.0)	9 (5.2)	18 (10.3)	3 (1.7)	174 (100)		
	읍 · 면	268 (30.2)	32 (11.9)	153 (57.1)	14 (5.2)	15 (5.6)	45 (16.8)	9 (3.4)	268 (100)		
생 활 수준별	상 상	6 (0.7)	-	2 (33.3)	1 (16.7)	-	3 (50.0)	-	6 (100)	20	25.61
	상	104 (11.7)	13 (12.5)	68 (65.4)	3 (2.9)	7 (6.7)	7 (6.7)	6 (0.7)	104 (100)		
	보 통	725 (81.7)	88 (12.1)	440 (60.7)	32 (4.4)	44 (6.1)	101 (13.9)	20 (2.3)	725 (100)		
	하	44 (5.0)	6 (13.6)	29 (65.9)	2 (4.5)	-	7 (15.9)	-	44 (100)		
	하 하	8 (0.9)	-	5 (62.5)	1 (12.5)	-	2 (25.0)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6)	20 (9.6)	131 (62.7)	10 (4.8)	11 (5.3)	31 (14.8)	6 (2.9)	209 (100)	25	18.81
	사업 및 서비스업	246 (27.7)	26 (10.6)	161 (65.4)	9 (3.7)	12 (4.9)	30 (12.2)	8 (3.3)	246 (100)		
	노 동	75 (8.5)	14 (18.7)	40 (53.3)	4 (5.3)	7 (9.3)	7 (9.3)	3 (4.0)	75 (100)		
	회 사 원	94 (10.6)	10 (10.6)	58 (61.7)	2 (2.1)	6 (6.4)	17 (18.1)	1 (1.1)	94 (100)		
	공 무 원 교 사	111 (12.5)	16 (14.4)	70 (63.1)	5 (4.5)	4 (3.6)	13 (11.7)	3 (2.7)	111 (100)		
	기 타	152 (17.1)	21 (13.8)	84 (55.3)	9 (5.9)	11 (7.2)	22 (14.5)	5 (3.3)	152 (100)		
전 체		887 (100)	107 (12.1)	544 (61.3)	39 (4.4)	51 (5.7)	120 (13.5)	26 (2.9)	887 (100)		

(** $p<0.01$)

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남학생은 '가난한 북한 동포의 모습'이나 '자유가 없는 폐쇄적인 국가'라는 응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통일', '한민족', '공산주의'라는 응답이 많았다. 나머지 배경 변인별 반응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표 29>와 같이 ① 동일한 우리 족이 세운 국가(12.1%) ② 자유가 없고 억압적인 답답한 국가(61.3%) ③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대 국가(4.4%) ④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주적인 국가(5.7%) 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영토(13.5%) ⑥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헐벗고 굶주린 주변 국가(2.9%)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북한을 '동일 민족이 세운 우리 국가' 또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의 영토'라고 응답한 학생은 25.6%로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중학생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많은 학생(65.7%)이 북한을 '자유가 없고 억압적인 답답한 국가' 또는 '적대 국가'라는 부정적인 의미지를 같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이(15.2%) 남학생(9.1%)보다 북한을 '동일한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라는 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유가 없고 억압적인 답답한 국가'라는 반응은 여학생(66.2%)이 남학생(56.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북한을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반응에 읍·면 지역 학생(16.8%)이 시 지역 학생(15.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동일한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18.7%)'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주적인 국가(9.3%)'라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및 북한 주민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어떤 반

응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응은 <표 30>, <표 31>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표 30>과 같이 ① 같은 민족(36.2%) ② 무서운 사람들(5.4%) ③ 외국인(2.2%) ④ 불쌍한 사람들(52.3%) ⑤ 관심 밖의 사람들(3.8%)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반응을 보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같은 민족이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소수지만 북한을 '외국인' 또는 '관심 밖의 사람들'이라는 반응을 보인 학생(6.0%)도 있는데, 이는 큰 문제라 아닐 수 없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56.2%)이 여학생(49.3%)보다 북한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45.1%)이 시 지역 학생(31.75%)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사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같은 민족'에는 낮은 반응(30.8%)을, '불쌍한 사람들'에는 높은 반응(57.1%)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과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한다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는가?"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31>과 같이 ① 북한을 응원하겠다(55.6%) ②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9.2%) ③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21.8%) ④ 아무 나라도 응원하지 않겠다(13.4%)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6.2%에 그치고 있으나(<표 30> 참조),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는 반응에 비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선행 연구를 보면, 김희의 연구[55] 나 이완성의 연

---

55) 김희(1993), 전게서, pp. 18~19.

<표 3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56 (51.2)	155 (34.1)	23 (5.1)	10 (2.2)	251 (56.2)	16 (3.5)	455 (51.2)	4	3.10
	여	434 (48.8)	167 (38.5)	25 (5.8)	10 (2.3)	214 (49.3)	18 (4.1)	434 (48.8)		
거주지별	제주시	446 (50.2)	148 (33.2)	25 (5.6)	12 (2.7)	243 (54.5)	18 (4.0)	446 (50.2)	8	17.75*
	서귀포시	175 (19.7)	53 (30.3)	14 (8.0)	3 (1.7)	96 (54.9)	9 (5.1)	175 (19.7)		
	읍·면	268 (30.1)	121 (45.1)	9 (3.4)	5 (1.9)	126 (47.0)	7 (2.6)	268 (30.1)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1 (16.7)	-	3 (50.0)	-	6 (0.7)	16	13.26
	상	106 (11.9)	43 (40.6)	8 (7.5)	4 (3.8)	47 (44.3)	4 (3.8)	106 (11.9)		
	보통	725 (81.6)	258 (35.6)	37 (5.1)	16 (2.2)	384 (53.0)	30 (4.1)	725 (81.6)		
	하	44 (4.9)	18 (40.9)	1 (2.3)	-	25 (56.8)	-	44 (4.9)		
	하하	8 (0.9)	1 (12.5)	1 (12.5)	-	6 (75.0)	-	8 (0.9)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5)	90 (43.1)	10 (4.8)	3 (1.4)	99 (47.4)	7 (3.3)	209 (23.5)	20	23.63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8)	76 (30.8)	13 (5.3)	7 (2.8)	141 (57.1)	10 (4.0)	247 (27.8)		
	노동	75 (8.4)	28 (37.3)	8 (10.7)	2 (2.7)	37 (49.3)	-	75 (8.4)		
	회사원	94 (10.6)	35 (37.2)	4 (4.3)	2 (2.1)	51 (54.3)	2 (2.1)	94 (10.6)		
	공무원 교사	112 (12.6)	43 (38.4)	2 (1.8)	3 (2.7)	59 (52.7)	5 (4.5)	112 (12.6)		
	기타	152 (17.1)	50 (32.9)	11 (7.2)	3 (2.0)	78 (51.3)	10 (6.6)	152 (17.1)		
전체		889 (100)	322 (36.2)	48 (5.4)	20 (2.2)	465 (52.3)	34 (3.8)	889 (100)		

(* $p<0.05$)

<표 31>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5 (51.2)	215 (47.3)	40 (8.8)	114 (25.1)	86 (18.9)	455 (100)	3	37.43***
	여	434 (48.8)	279 (64.3)	42 (9.7)	80 (18.4)	33 (7.6)	434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6 (50.2)	237 (53.1)	49 (11.0)	98 (22.0)	62 (13.9)	446 (100)	6	9.98
	서귀포시	175 (19.7)	100 (57.1)	20 (11.4)	35 (20.0)	20 (11.4)	175 (100)		
	읍·면	268 (30.1)	157 (58.6)	13 (4.9)	61 (22.8)	37 (13.8)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3 (50.0)	1 (16.7)	1 (16.7)	1 (16.7)	6 (100)	12	11.27
	상	106 (11.9)	58 (54.7)	14 (13.2)	22 (20.8)	12 (11.3)	106 (100)		
	보통	725 (81.6)	402 (55.4)	59 (8.1)	166 (22.9)	98 (13.5)	725 (100)		
	하	44 (4.9)	27 (61.4)	6 (13.6)	4 (9.1)	7 (15.9)	44 (100)		
	하하	8 (0.9)	4 (50.0)	2 (25.0)	1 (12.5)	1 (1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5)	107 (51.2)	15 (7.2)	57 (27.3)	30 (14.4)	209 (100)	15	17.54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8)	144 (58.3)	23 (9.3)	52 (21.1)	28 (11.3)	247 (100)		
	노동	75 (8.4)	36 (48.0)	11 (14.7)	19 (25.3)	9 (12.0)	75 (100)		
	회사원	94 (10.6)	56 (59.6)	6 (6.4)	20 (21.3)	12 (12.8)	94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65 (58.0)	9 (8.0)	24 (21.4)	14 (12.5)	112 (100)		
	기타	152 (17.1)	86 (56.6)	18 (11.8)	22 (14.5)	26 (17.1)	152 (100)		
전체		889 (100)	494 (55.6)	82 (9.2)	194 (21.8)	119 (13.4)	889 (100)		

(*** $p<0.001$)

구[56]에 의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초등학생이 52.5%, 고등학생이 6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동족의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은 여학생(64.3%)이 남학생(4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시 지역 (11.2%)이 읍·면 지역 (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북한을 응원하겠다'에는 전체(55.6%)에 비해서 낮은 반응(48.0%)을,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에는 전체(9.2%)에 비해 높은 반응(14.7%)을 보였다.

5)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최근 북한의 변화 정도·이유 및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사회가 2~3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32>, <표 33>, <표 34>와 같다.

첫째, 최근 북한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표 32>와 같이 ① 많이 변했다(20.9%) ② 약간 변했다(49.8%) ③ 거의 변하지 않았다(22.3%) ④ 전혀 변하지 않았다(7.0%)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북한이 많이 또는 약간 변했다(70.7%)'는 응답이 '거의 또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29.3%)'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북한이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25.3%)이 남학생(16.7%)보다 '북한이 많이 변했다'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북한이

56)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15~16.

<표 32> 최근 북한의 변화 정도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4 (51.1)	76 (16.7)	241 (53.1)	107 (23.6)	30 (6.6)	454 (100)	3	10.75*
	여	434 (48.9)	110 (25.3)	201 (46.3)	91 (21.0)	32 (7.4)	434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5 (50.1)	92 (20.7)	211 (47.4)	105 (23.6)	37 (8.3)	445 (100)	6	11.21
	서귀포시	175 (19.7)	28 (16.0)	91 (52.0)	42 (24.0)	14 (8.0)	175 (100)		
	읍·면	268 (30.2)	66 (24.6)	140 (52.2)	51 (19.0)	11 (4.1)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1 (16.7)	4 (66.7)	-	1 (16.7)	6 (100)	12	12.37
	상	106 (11.9)	26 (24.5)	45 (42.5)	24 (22.6)	11 (10.4)	106 (100)		
	보통	724 (81.5)	146 (20.2)	372 (51.4)	161 (22.2)	45 (6.2)	724 (100)		
	하	44 (5.0)	10 (22.7)	19 (43.2)	10 (22.7)	5 (11.4)	44 (100)		
	하하	8 (0.9)	3 (37.5)	2 (25.0)	3 (37.5)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5)	46 (22.0)	106 (50.7)	45 (21.5)	12 (5.7)	209 (100)	15	10.97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8)	47 (19.0)	125 (50.6)	59 (23.9)	16 (6.5)	247 (100)		
	노동	75 (8.4)	12 (16.0)	35 (46.7)	20 (26.7)	8 (10.7)	75 (100)		
	회사원	94 (10.6)	18 (19.1)	48 (51.1)	23 (24.5)	5 (5.3)	94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22 (19.6)	55 (49.1)	26 (23.2)	9 (8.0)	112 (100)		
	기타	151 (17.0)	41 (27.2)	73 (48.3)	25 (16.6)	12 (7.9)	151 (100)		
전체		888 (100)	186 (20.9)	442 (49.8)	198 (22.3)	62 (7.0)	888 (100)		

(* $p<0.05$)

변했다'라는 반응은 전체(70.7%)에 비해 낮게(52.7%),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은 전체(29.3%)에 비해 높게(47.3%)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북한의 변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표 33>에서와 같이 ①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 압력(13.2%) ②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12.2%) ③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10.6%) ④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52.8%) ⑤ 김일성·김정일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1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변화 이유를 대외적 이유(36.1%)보다는 대내적 이유(63.9%)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북한의 어려운 식량 문제나 계속되는 북한 주민의 월남 등으로 북한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39.5%)이 남학생(32.5%)보다 변화 요인으로 '대내적 요인'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는 전체(52.8%)에 비해 낮은(39.1%) 반응을, '김일성·김정일 독재에 주민들의 불만'에는 전체(11.1%)에 비해 높은(20.3%)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표 34>에서와 같이 ① 전혀 없다(1.9%) ② 별로 없다(15.9%) ③ 조금 있다(48.6%) ④ 매우 크다(19.5%) ⑤ 잘 모르겠다(14.1%)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68.1%)'는 반응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17.8%)'라는 반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공산권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 등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21.7%)이 남학생(14.1%)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배경 변인별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33> 최근 북한의 변화 이유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①	②	③	④	⑤	소계	df	χ^2
성별	남	418 (50.5)	54 (12.9)	42 (10.0)	40 (9.6)	229 (54.8)	53 (12.7)	418 (100)	4	6.64
	여	409 (49.5)	55 (13.4)	59 (14.4)	48 (11.7)	208 (50.9)	39 (9.5)	409 (100)		
거주지별	제주시	418 (50.5)	59 (14.1)	53 (12.7)	44 (10.5)	225 (53.8)	37 (8.9)	418 (100)	8	6.78
	서귀포시	157 (19.0)	21 (13.4)	22 (14.0)	17 (10.8)	78 (49.7)	19 (12.1)	157 (100)		
	읍·면	252 (30.5)	29 (11.5)	26 (10.3)	27 (10.7)	134 (53.2)	36 (14.3)	252 (100)		
생활수준별	상상	5 (0.6)	1 (20.0)	-	1 (20.0)	3 (60.0)	-	5 (100)	16	25.83
	상	98 (11.9)	13 (13.3)	8 (8.2)	2 (2.0)	60 (61.2)	15 (15.3)	98 (100)		
	보통	675 (81.6)	92 (13.6)	90 (13.3)	80 (11.9)	346 (51.3)	67 (9.9)	675 (100)		
	하	42 (5.1)	3 (7.1)	3 (7.1)	5 (11.9)	22 (52.4)	9 (21.4)	42 (100)		
	하하	7 (0.8)	-	-	-	6 (85.7)	1 (14.3)	7 (100)		
보호자직업별	농업·어업	197 (23.8)	21 (10.7)	21 (10.7)	22 (11.2)	109 (55.3)	24 (12.2)	197 (100)	20	20.84
	사업및서비스업	224 (27.1)	25 (11.2)	28 (12.5)	26 (11.6)	125 (55.8)	20 (8.9)	224 (100)		
	노동	69 (8.3)	12 (17.4)	11 (15.9)	5 (7.2)	27 (39.1)	14 (20.3)	69 (100)		
	회사원	87 (10.5)	11 (12.6)	14 (16.1)	10 (11.5)	47 (54.0)	5 (5.7)	87 (100)		
	공무원교사	103 (12.5)	17 (16.5)	12 (11.7)	9 (8.7)	55 (53.4)	10 (9.7)	103 (100)		
	기타	147 (17.8)	23 (15.6)	15 (10.2)	16 (10.9)	74 (50.3)	19 (12.9)	147 (100)		
전체		827 (100)	109 (13.2)	101 (12.2)	88 (10.6)	437 (52.8)	92 (11.1)	827 (100)		

<표 34>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54 (51.2)	5 (1.1)	59 (13.0)	232 (51.1)	87 (19.2)	71 (15.6)	454 (100)	4	10.99*
	여	433 (48.8)	12 (2.8)	82 (18.9)	199 (46.0)	86 (19.9)	54 (12.5)	433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4 (50.1)	8 (1.8)	71 (16.0)	214 (48.2)	86 (19.4)	65 (14.6)	444 (100)	8	5.58
	서귀포시	175 (19.7)	1 (0.6)	29 (16.6)	90 (51.4)	36 (20.6)	19 (10.9)	175 (100)		
	읍·면	268 (30.2)	8 (3.0)	41 (15.3)	127 (47.3)	51 (19.0)	41 (15.3)	268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	16	8.96
	상	106 (12.0)	3 (2.8)	15 (14.2)	53 (50.0)	15 (14.2)	20 (18.9)	106 (100)		
	보통	723 (81.5)	14 (1.9)	114 (15.8)	350 (48.4)	149 (20.6)	96 (13.3)	723 (100)		
	하	44 (5.0)	-	9 (20.5)	21 (47.7)	7 (15.9)	7 (15.9)	44 (100)		
	하하	8 (0.9)	-	1 (12.5)	5 (62.5)	1 (12.5)	1 (12.5)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09 (23.6)	5 (2.4)	26 (12.4)	112 (53.6)	41 (19.6)	25 (12.0)	209 (100)	20	24.05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8)	4 (1.6)	49 (19.8)	113 (45.7)	52 (21.1)	29 (11.7)	247 (100)		
	노동	74 (8.3)	-	11 (14.9)	35 (47.3)	14 (18.9)	14 (18.9)	74 (100)		
	회사원	94 (10.6)	2 (2.1)	12 (12.8)	50 (53.2)	16 (17.0)	14 (14.9)	94 (100)		
	공무원 교사	112 (12.6)	5 (4.5)	22 (19.6)	51 (45.5)	22 (19.6)	12 (10.7)	112 (100)		
	기타	151 (17.0)	1 (0.7)	21 (13.9)	70 (46.4)	28 (18.5)	31 (20.5)	151 (100)		
전체		887 (100)	17 (1.9)	141 (15.9)	431 (48.6)	173 (19.5)	125 (14.1)	887 (100)		

(* $p<0.05$)

6)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방안

남북한 동질성의 회복 방안 즉 이질성의 극복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은 현재 남한과는 많은 점(예:언어, 경제 수준, 사고방식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표 35>에서와 같이 ① 남북한의 경제 교류(16.7%) ② 이산 가족의 상호 방문(9.6%) ③ 남북의 문화 교류(54.8%) ④ 남북 정상 회담(16.7%) ⑤ 무력에 의한 통일(2.2%)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1.5%의 학생이 경제·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이산 가족의 상호 방문을 통한 이질화 극복 방안에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청년 정책 연구소의 여론 조사[57]에 의하면 동질성 회복의 방안으로 '경제교류 협력(42.0%)', '이산 가족의 상호 방문(28.6%)', '문화교류(13.2%)', '남북 정상회담(10.9%)'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성인인 경우 이산 가족의 상호 방문을 중시함에 비해서 중학생은 문화교류를 중시하여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으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

57) 中央日報, "우리국민 90.3% 통일 관심도 높아 - 한국 청년 정책 연구소 - ," 1993年 8月 7日.

<표 35> 남북의 동질성 회복 방안

변 인		변 인 구성비	항 목 별 구 성 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 별	남	459 (51.3)	74 (16.1)	43 (9.4)	256 (55.8)	77 (16.8)	9 (2.0)	459 (100)	4	0.72
	여	435 (48.7)	75 (17.2)	43 (9.9)	234 (53.8)	72 (16.6)	11 (2.5)	435 (100)		
거 주 지 별	제 주 시	449 (50.2)	75 (16.7)	45 (10.0)	248 (55.2)	71 (15.8)	10 (2.2)	449 (100)	8	11.18
	서귀포시	177 (19.8)	29 (16.4)	14 (7.9)	110 (62.1)	20 (11.3)	4 (2.3)	177 (100)		
	읍 · 면	268 (30.0)	45 (16.8)	27 (10.1)	132 (49.3)	58 (21.6)	6 (2.2)	268 (100)		
생 활 수준별	상 상	6 (0.7)	3 (50.0)	1 (16.7)	1 (16.7)	1 (16.7)	-	6 (100)	16	27.23*
	상	108 (12.1)	25 (23.1)	12 (11.1)	52 (48.1)	17 (15.7)	2 (1.9)	108 (100)		
	보 통	727 (81.3)	112 (15.4)	66 (9.1)	414 (56.9)	119 (16.4)	16 (2.2)	727 (100)		
	하	45 (5.0)	8 (17.8)	7 (15.6)	21 (46.7)	7 (15.6)	2 (4.4)	45 (100)		
	하 하	8 (0.9)	1 (12.5)	-	2 (25.0)	5 (62.5)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6)	35 (16.6)	20 (9.5)	108 (51.2)	41 (19.4)	7 (3.3)	211 (100)	20	29.49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9)	40 (16.1)	22 (8.8)	152 (61.0)	31 (12.4)	4 (1.6)	249 (100)		
	노 동	76 (8.5)	10 (13.2)	9 (11.8)	40 (52.6)	15 (19.7)	2 (2.6)	76 (100)		
	회 사 원	96 (10.7)	16 (16.7)	13 (13.5)	56 (58.3)	9 (9.4)	2 (2.1)	96 (100)		
	공 무 원 교 사	112 (12.5)	23 (20.5)	4 (3.6)	66 (58.9)	19 (17.0)	-	112 (100)		
	기 타	150 (16.8)	25 (16.7)	18 (12.0)	68 (45.3)	34 (22.7)	5 (3.3)	150 (100)		
전 체		894 (100)	149 (16.7)	86 (9.6)	490 (54.8)	149 (16.7)	20 (2.2)	894 (100)		

(* $p<0.05$)

3. 國家觀

자기가 속한 국가·사회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발전과 쇄망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학생들의 국가관이 우리 민족의 발전은 물론 역사적 사명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크나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학생들의 국가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 위기시의 태도'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하여 중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 국가 위기시의 태도

국가 위기시 중학생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 국가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표 36>에서와 같이 ① 기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30.5%) ②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20.0%) ③ 상황에 따라 행동하겠다(47.4%) ④ 강한편을 들겠다(2.1%)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7.4% 학생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학생은 30.5%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학생도 20.0%에 이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의 연구[58]에서는 '유보적인 입장(44.5%)',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37.1%)',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겠다(14.4%)',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4.1%)'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완성의 연구[59]에서는 '유보적인 입장(48.4%)',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29.2%)',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14.4%)',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8.0%)'라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를 비교할 때 초·중·고 학생을

58) 김희(1993), 전게논문, pp. 75~77.

59)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61~ 62.

<표 36> 국가 위기시의 태도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소계		
성별	남	458 (51.3)	99 (21.6)	104 (22.7)	249 (54.4)	6 (1.3)	458 (100)	3	40.14***
	여	435 (48.7)	173 (39.8)	75 (17.2)	174 (40.0)	13 (3.0)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49 (50.3)	131 (29.2)	98 (21.8)	208 (46.3)	12 (2.7)	449 (100)	6	3.68
	서귀포시	178 (19.9)	54 (30.3)	33 (18.5)	88 (49.4)	3 (1.7)	178 (100)		
	읍·면	266 (29.8)	87 (32.7)	48 (18.0)	127 (47.7)	4 (1.5)	266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2 (33.3)	-	3 (50.3)	1 (16.7)	6 (100)	12	18.28
	상	109 (12.2)	28 (25.7)	28 (25.7)	49 (45.0)	4 (3.7)	109 (100)		
	보통	725 (81.2)	226 (31.2)	143 (19.7)	345 (47.6)	11 (1.5)	725 (100)		
	하	45 (5.0)	14 (31.1)	6 (13.3)	22 (48.9)	3 (6.7)	45 (100)		
	하하	8 (0.9)	2 (25.0)	2 (25.0)	4 (50.0)	-	8 (100)		
보호자 직업별	농업·어업	211 (23.6)	63 (29.9)	34 (16.1)	109 (51.7)	5 (2.4)	211 (100)	15	13.83
	사업 및 서비스업	247 (27.7)	72 (29.1)	55 (22.3)	113 (45.7)	7 (2.8)	247 (100)		
	노동	76 (8.5)	23 (30.3)	11 (14.5)	41 (53.9)	1 (1.3)	76 (100)		
	회사원	95 (10.6)	36 (37.9)	19 (20.0)	37 (38.9)	3 (3.2)	95 (100)		
	공무원 교사	113 (12.7)	31 (27.4)	23 (20.4)	58 (51.3)	1 (0.9)	113 (100)		
	기타	151 (16.9)	47 (31.1)	37 (24.5)	65 (43.0)	2 (1.3)	151 (100)		
전체		893 (100)	272 (30.5)	179 (20.0)	423 (47.4)	19 (2.1)	893 (100)		

(*** $p<0.001$)

막론하고 거의 반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행동 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꺼이 군인이 되어 희생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치홍의 연구[60]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시 '확실히 참여하여 싸우겠다'라는 반응으로 중학생이 43.9%, 고등학생이 52.2%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하여 싸울 것 같다'라는 반응은 중학생이 19.7%, 고등학생이 24.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 결과로 볼 때 10년 사이에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이 국가 위기시의 행동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화해 분위기로 변했다고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국제 정세에 비례하여 안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국가 위기시에 보인 반응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여학생(39.8%)이 남학생(21.6%) '기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문항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라는 반응은 남학생(22.7%)이 여학생(1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생활 수준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보호자 직업별로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상황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문항에 전체(47.4%) 반응에 비해 높은(53.9%)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

중학생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월성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북한 학생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사회(남한 사회)가 공산주의(북한 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표 37>과 같이 ① 확실히 할 수 있다(18.0%) ② 할 수 있다(49.2%) ③ 잘 모르겠다(26.8%) ④ 할 수 없다(3.3%) ⑤ 전혀 할 수 없다(3.3%)라는 반응을 보였다.

---

60) 김치홍(1985), 전게논문, pp. 71~73.

<표 37>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성비	항목별 구성비						df	χ^2
			①	②	③	④	⑤	소계		
성별	남	461 (51.5)	89 (19.3)	246 (53.4)	107 (23.2)	10 (2.2)	9 (2.0)	461 (100)	4	14.60**
	여	435 (48.5)	72 (16.6)	195 (44.8)	133 (30.6)	20 (4.6)	15 (3.4)	435 (100)		
거주지별	제주시	451 (50.3)	83 (18.4)	216 (47.9)	115 (25.5)	20 (4.4)	17 (3.8)	451 (100)	8	9.72
	서귀포시	178 (19.9)	31 (17.4)	91 (51.1)	52 (29.2)	2 (1.1)	2 (1.1)	178 (100)		
	읍·면	267 (29.8)	47 (17.6)	134 (50.2)	73 (27.3)	8 (3.0)	5 (1.9)	267 (100)		
생활수준별	상상	6 (0.7)	4 (66.7)	2 (33.3)	-	-	-	6 (100)	16	22.63
	상	109 (12.2)	23 (21.1)	51 (46.8)	26 (23.9)	4 (3.7)	5 (4.6)	109 (100)		
	보통	728 (81.3)	122 (16.8)	367 (50.4)	198 (27.2)	24 (3.3)	17 (2.3)	728 (100)		
	하	45 (5.0)	10 (22.2)	15 (33.3)	16 (35.6)	2 (4.4)	2 (4.4)	45 (100)		
	하하	8 (0.9)	2 (25.0)	6 (75.0)	-	-	-	8 (100)		
보호자직업별	농업·어업	211 (23.5)	28 (13.3)	110 (52.1)	62 (29.4)	7 (3.3)	4 (1.9)	211 (100)	20	33.45*
	사업 및 서비스업	249 (27.8)	47 (18.9)	135 (54.2)	59 (23.7)	5 (2.0)	3 (1.2)	249 (100)		
	노동	76 (8.5)	16 (21.1)	30 (39.5)	23 (30.3)	4 (5.3)	3 (3.9)	76 (100)		
	회사원	95 (10.6)	24 (25.3)	45 (47.4)	22 (23.2)	3 (3.2)	1 (1.1)	95 (100)		
	공무원 교사	113 (12.6)	22 (19.5)	56 (49.6)	30 (26.5)	3 (2.7)	2 (1.8)	113 (100)		
	기타	152 (17.0)	24 (15.8)	65 (42.8)	44 (28.9)	8 (5.3)	11 (7.2)	152 (100)		
전체		896 (100)	161 (18.0)	441 (49.2)	240 (26.8)	30 (3.3)	24 (2.7)	896 (100)		

(* $p<0.05$, ** $p<0.01$)

전체 응답자 중 '할 수 있다(67.2%)'라는 반응이 '할 수 없다(6.0%)'라는 반응보다 훨씬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김희의 연구[61]에서는 69.1% 학생이 '자신 있게 또는 조금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완성의 연구[62]에서는 63.4%의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내 초·중·고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할 수 있다'라는 반응으로 남학생(72.7%)이 여학생(6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녀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67.2%)에 비해 낮은(60.6%) 반응을, '유보적(30.3%) 또는 '할 수 없다(9.2%)'라는 문항에는 전체(각각 26.8%, 6.6%)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61) 김희(1993), 전게논문, pp.77~79.

62) 이완성(1994), 전게논문, pp. 63 ~ 64.

V. 結 論 : 要約 및 提言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통일의식의 실태를 분석 진단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생들을 시·읍·면 지역의 지역별 및 인구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총 11개 학교 927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설문 조사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또한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χ^2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9개분야 20문항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로는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은 응답자의 39.1%만이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0.1%에 그치고 있어 통일 의지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의 이유를 민족적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89.5%가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 높은 반응(84.3%)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는 아직도 남북의 이념 대립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유화·개방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못지않게 꾸준한 남북 교류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통일 후의 국가는 88.6% 학생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의 장점(경제적 번영)이나 단점(경제적 혼란)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 여섯째, 남한·북한의 통일정책을 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4.7%,

22.7%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이 통일정책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일 문제는 국익에 손해가 없는 한 완전히 개방해야 하며, 통일 논의가 기성세대 중심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통일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84.8%)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 중학생도 충분히 또는 조금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반응도 64.8%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분단의 원인을 상당히 많은 응답자(53.1%)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관은 6개분야 11개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84.2%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 북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지식의 대부분을 대중 매체(73.2%)를 통해서 얻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는다는 반응은 19.3%에 그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첫 인상은 대부분(72.8%)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25.6%만이 동일민족 또는 우리의 영토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74.4% 학생이 부정적인(자유가 없고 답답한 국가 또는 적대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넷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불쌍한 사람들(88.5%)이라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로는 북한이 많이 또는 조금 변했다(70.7%)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북한이 변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변화의 이유로는 대외적 요인(36.1%)보다는 대내적 요인(63.9%)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1%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전쟁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71.5%가 꾸준한 경제·문화 교류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67.2%가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국가 위기시(북한의 남침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반응이 30.5%에 그치고 있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은 47.4%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반응이 20.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중학생들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이나 우리 사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중학생들은 미래의 통일의 주역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적 당위성에 두기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셋째, 중학교 교과서에 엄연히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실려 있는데도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의 분단 원인에 대한 인식도 사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중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지식의 대부분을 대중 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 교육이나 정부의 역할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시 중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국가 위기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희생 정신이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문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방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통일 방안을 좀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분단 국가였으나 최근에 통일을 이룩한 다른 나라의 통일 방안까지도 소개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대중 매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한 북한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은 남한만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기성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통일의식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기성 세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아직은 중학생들이 어리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좀더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학교, 사회는 물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 文獻

<單行本>

교육부(1994), 「중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 해설 -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92.6.30)」.

교육부(1996.3), 「중학교 도덕 교과서 1,2,3」.

국토통일원(1973),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및 진단과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1972), 「통일 및 안보·가치관에 대한 여론 조사」.

김학준(1989), 「한국전쟁」, 박영사.

민병천(1992), 「신통일론」, 고려원.

民族統一研究院(1993), 「1993年度 統一 問題 國民輿論 調査 結果」.

이홍구 외(1984), 「분단과 통일 민족주의」, 박영사.

이상우(1993), 「함께사는 통일」, 나남.

정영수(193),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학회.

통일연수원(1995), 「통일 문제 이해」.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편(1994).「변화된세계 새로운 통일론」.평화 문제 연구소.

<論 文>

金致洪(1980), "濟州道 中·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金姬(1993),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羅德柱(1992), "高等學校 學生의 北韓觀과 統一意識 調査研究," 碩士學位 論文, 西江大學校 公共政策大學院.

박성희·박정선(1992),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李完成(1994), "濟州道 高等學生의 統一意識에 關한 調査研究," 碩士學位 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張炅模(1985), "靑少年의 統一意識 調査研究 - 釜山地方 中·高等學生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附屬大學院.

車敏卿(1993), "初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敎

圓大學校 大學院.

韓大永(1993), "韓國青少年들의 統一意識에 關한 硏究-京畿道地域 高敎生들의 設問 調査 結果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其他 文獻>

東亞出版社(1995), 「世界東亞大百科事典 (제23권)」.

東亞出版社(1995), 「世界東亞大百科事典 (제25권)」.

서울리서치(1993.11.8-11.21.), "통일이되어 좋은 점, 나쁜점<청소년의 생각>."

中央日報, "우리국민 90.3% 통일 관심도 높아 - 한국 청년 전책 연구소 조사," 1993年 8月 7日.

한국어사전편찬회, 이숭녕 편(1988), 「국어 대사전」.

韓國日報, "중·고생 70% '통일 반드시 이룰 필요 없다'," 1995年 5月 4日.

韓國日報, "통일은 최소한 10년 지나야 가능," 1995年 8月 17日.

韓國日報,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5年 8月 8日.

<summary>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Cho, Seung-Gyu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do, Korea

Supervised by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formation of unification consciouness and some basic inform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by reserching the unification conscio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This study was reserched questioning to 927 students of 11 schools on the view of unification, North korea and nation,considring all situations in Cheju-do. The reserch method chosen is theoretical approch and emperical approch with the question survey. And all data were calculatated by percentages and χ^2-test to clarify the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in the above mentioned field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allows.

20 questions of 9 fields were presented on the view of unification. The 1st result shows that they are apt to discuss unlfication(39.1%). The 2nd shows that they think unification should be done (10.1%). This also shows that they tend to look for the motivation of unification more in real lif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than in obligation of nation. But 89.5% of them are positive to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The 3rd shows that they are much in favor of the way unification will be done peacefully(89.5%) ,which it can take years though. And it shows that the main group of unification will be both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4th shows that the most obstacle of the unification is the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n ideology(38.6%) and, for unification, first of al the liberalization and the ope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North Korea keeping inter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5th shows that the nation after unification should be the democracy country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ill be the economy. The 6th shows that the recognition of unification policiies of South and North goverments is too low(24.7%, 22.7%). The 7th shows that the concern of unification should be exposed completely as far as it doesn't bring about any loss to it's country and many students are alot unsatisfactory to the unification discussion made just between adults. The 8th shows that the all people should play main roles of carrying out the unification and many students(64.8 %) are also positive to their role of achieving the unification. The last shows that the causes of divided into two is more resulted from the internal affairs than external things.

In view of north korea, 11 questions of 6 fields were presented. The 1st result shows that many of them(84.2%) hope to visit the north korea, which reveals much concern to the north Korea. The 2nd shows that though they are much interested in North Korea, they have few knowledges of North Korea and they get most information about it through mass - media(73.2%). The 3rd shows that the first impression of North Korea is negative (72.8%), only 25.6% consider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74.4% have negative image of North Korea. The 4th shows that students are much concerned about the same age and people in north,

while the view of North Korea is negative in general, and many of them feel north korean people sympathetic (88.5%). The 5th shows that the evaluation of how the North Korea changed, there is a consensus that it has generally changed. The most reasons of bringing the changes are domestic factors (63.9%) and foreign factors (36.1%). There is no doubt that changes has gone through in north but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that the war can be provoked, too (68.1%). The last result shows that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terchanges of culture and economy should be continued.

In view of nation, many of them (67.2%) think that the democracy is superior than any things, but only quite a few are willing to sacrifice for country (30.5%) when the country is at a crisis. some of them aren't sure (47.4%), even some of them want to go to other country (20.0%).

설 문 지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제주도 중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드라도 시간을 내어 중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표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6.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조 승 균

☛ **유의 사항**

1. 질문지는 첫장부터 순서대로 기입해주십시오.
2. 이 설문지는 옳고 그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혼자의 생각을 기입해 주십시오.
3. 모든 문항에 **반드시 하나의 란에만** O표를 해 주십시오.
4. 만약 O표를 한 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O표위에 ×표를 하고 다시 맞는 란에 O표를 하시면 됩니다.

※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O표를 해 주십시오.

1. 나의 성별은? 1) 여자 2) 남자

2. 내가 사는 곳은? 1) 제주시 2) 서귀포시 3) 읍.면지역

3. 우리집의 경제적 형편은?
   1) 매우 잘사는 편 2) 잘사는 편 3) 보통임
   4) 못사는 편 5) 매우 못사는편

4. 보호자의 직업은?
   1) 농업 . 어업 2) 상업 및 서비스업 3) 노동
   4) 회사원 5) 공무원 및 교사 6) 기타

5.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관심이 있다 2) 약간 관심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관심이 없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6. 평소 친구나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 통일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십니까?
1) 자주 한다 2) 가끔 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하지 않는다 5) 전혀 하지 않는다

7. 평소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능하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을것 같다
3) 북한이 좀더 잘 살게 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5)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8. 만약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
2)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3)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4)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5) 우리 민족이 모두 잘 살기 위해서

9. 남북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1) 5년 내 2) 10년 내 3) 20년 내 4) 20년 이후
5) 가능성이 거의 없다 6) 절대 불가능하다

10.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2) 전쟁을 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이룩해야한다
3) 어떤 방법도 좋다
4) 잘 모르겠다

11.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
2) 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야 한다
3)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루어야 한다
4)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주변의 세계 강대국들의 협상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누가 하든 상관 없다

12.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남북한 이념,사상의 대립
2)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대립
3)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
4) 남북한의 통일 열의 부족
5) 남북의 경제적 격차
6) 남북한간의 여러가지 다른점
7) 통일 방법의 차이
8) 미국군이 있어서

13.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남북의 경제 교류
2) 남북의 국교 수립
3) 이산 가족의 계속적인 상호방문
4) 강대국의 협조 요청
5) 북한의 자유화개방화
6) 미국군의 한국에서의 철수
7) 남북한 편지 교환과 전화 통신 연락

14. 통일 후 우리 국가는 어떤 체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유 민주주의 체제
2) 공산주의 체제
4) 남북한 혼합절충 체제
4) 어느 체제도 좋다

15.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북한땅을 마음데로 여행할 수 있다
2) 이산 가족의 고통해소 및 단일민족이 재결합 된다
3)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4) 거주 공간이 넓어진다(북한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5) 전쟁발생의 방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6)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국방비 지출이 감소)
7)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된다

16. 통일이 되어 나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의사소통이 불편하다(표준어를 다시 배워야)
2) 남북의 경제적 차이로 남북 주민의 대립이 일어난다
3) 남북의 사상적 차이로 잦은 언쟁이 발생한다
4) 국제 경쟁력 약화로 경제가 침체한다
5)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북한지역의 경제지원으로)

17.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최근 발표된 '통일정책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2)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3)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4)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8. 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2)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

3) 들어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4)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9. 통일 문제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언제,어디서,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
2) 국가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해야 한다
3)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부와 전문가들만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20.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어떤점을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1) 기성세대(어른들) 중심으로 젊은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2)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3) 실현가능성이 적다
4) 남북한을 적대,대립 관계로만 생각한다
5)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다

21. 통일을 이루는데 주체가 되는 세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청소년)　　2) 기성세대(어른들)
3) 미래세대　　4) 모든 국민

22. 여러분들은 남북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한 능력이 있다　　2) 조금 능력이 있다
3) 별로 능력이 없다　　4) 전혀 능력이 없다

23.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남한 지도자들의 책임　　2) 민족의 내부 분열
3)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4)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24.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이산 가족의 아픔
2) 동족끼리 총칼을 맞대고 있는 고통
3) 무기 구입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4)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
5) 남북의 대립으로 힘없는 국가로 떨어짐

25. 남북한간의 상호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시겠습니까?
1) 방문하고 싶다　　2) 방문하고 싶지 않다

26. 북한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이 알고 있다　　2) 약간 많이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조금 알고 있다
5) 전혀 모른다

27.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
2) 학교 교육
3) 부모형제 및 친척
4) 각종 북한 관련 서적(책)
5) 주변의 친구

28. 북한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을 다음 중 고른다면?
1) 동일한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
2) 자유가 없고 억압적인 답답한 국가
3)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대 국가
4)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주적인 국가
5)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영토
6)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헐벗고 굶주린 주변 국가

29. 북한 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
2) 무서운 사람들
3) 외국인
4)불쌍한 사람들
5) 관심 밖의 사람들

30. 북한과 다른 나라가 축구경기를 한다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1) 북한을 응원하겠다
2) 다른 나라를 응원하겠다
3) 상황에 다라 응원하겠다
4) 아무 나라도 응원하지 않겠다

31. 북한 사회가 2~3년전에 비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변했다
2) 약간 변했다
3) 거의 변하지 않았다
4) 전혀 변하지 않았다

32. 북한이 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 압력
2)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3)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
4)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5) 김일성 독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33.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조금 있다
4) 매우 크다
5) 잘 모르겠다

34. 북한은 현재 남한과는 많은점(예:언어,경제수준,사고방식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남북의 경제 교류 협력
2) 이산 가족의 상호 방문
3) 남북의 문화 교류
4) 남북 정상 회담
5) 무력에 의한 통일

35.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 국가에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기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
2)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3) 상황에 따라 행동하겠다
4) 강한 편을 들겠다

36. 여러분은 북한 학생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사회(남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 회(북한 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확실히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3) 잘 모르겠다
4) 할 수 없다
5) 전혀 할 수 없다

37. '북한'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또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